

남가주 교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 기도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 위한 신년 조찬기도회에 참석한 남가주 지역 교계 단체장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민주평화통일회의 LA협의회(회장 에드워드 구)와 남가주 교계 단체들은 지난 18일, 가든 스위트 호텔에서 남북 평화 통일과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를 위한 신년 조찬기도회를 개최했다.

조찬기도회는 민주평화통일회의 LA협의회를 비롯해 남가주 기독교

교회협의회, 남가주 한인 목사회, 남가주 한인 장로회, 미주 성시화, 기독교실업인회 등 남가주 교계 지도자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2032 서울 평양 공동 올림픽 유치, 조국 발전 및 한반도 평화, 한인 커뮤니티의 발전, 공공외교와 차세대를 위해 기도했다.

참석자들은 공동기도를 통해 대

한민국의 분열과 갈등이 화합과 사랑으로 회복되고, 탈북자들의 안전과 북한 땅에 생명의 복음이 퍼져나갈 기도를 했다.

이날 “아브라함과 소돔의 평화”(창 18:22-33)란 제목으로 설교한 민종기 목사는 “북한 공산 정권을 미워할 수 있지만, 20만의 지하교인과 무고한 어린이가 있다. 소돔

이 타락했을 때 평화의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듯, 우리 또한 평화의 사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도회는 중요한 목사의 사회로 장병우 장로가 대표기도, 이명은 전도사가 성경봉독을 했다. 비올렛 심 찬양사역자의 특별찬양에 이

어 민종기 목사가 설교했으며, 공동기도 후 정완기 목사가 축사했다. 기도회는 송정명 목사의 축사로 마쳤다.

한편 민주평화통일회의 LA협의회는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LA 지원 유치단 조직을 위해 목회자들의 지원을 요청했다.

김동욱 기자

한국계 미국인 줄리어스 김 박사, 美 TGC 대표 선출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출신

줄리어스 김(Julius Kim) 박사가 복음주의 단체인 미국 TGC(The Gospel Coalition)의 대표로 선출됐다. TGC는 지난 15일 이사회를 열고, D. A. 카슨 대표의 후임으로 줄리어스 김 교수를 만장일치로 선임했다고 20일 발표했다. 백인 위주의 미국 복음주의 계열의 연합체에서, 한국계 목회자가 대표로 선출된 것

은 이번이 처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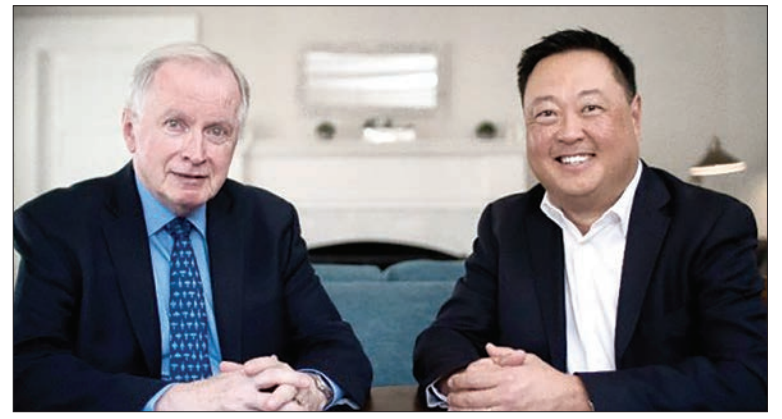
줄리어스 김 신임대표는 “TGC 이사회가 저에게 그리스도를 섬길 특권을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TGC 사역에 주님께서 신실하게 축복하시길 기도하며 소원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민 1세대인 아버지의 신앙과 삶이 김 박사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당시 한국 이민 사회도 그의 미국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됐다.

줄리어스 김 대표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났으며 캘리포니아

웨스트민스터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M.Div.)를, 트리니티복음주의신학교에서 박사(Ph.D.) 학위를 받았다. 이후 트리니티복음주의신학교와 트리니티인터내셔널대에서 교수로 활동했다. 영국 캠브리지대, 한국 훗볼트리니티대학원대 방문 교수로 활동하기도 했다.

TGC는 개혁주의 신학과 복음주의적 신앙을 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 2005년 미국에서 창립된 기독교 연합 기구로 세계적 신학자인 D.A. 카슨 트리니티복음주의신학교 명예



D. A. 카슨 대표의 뒤를 이어받는 줄리어스 김 신임 대표(왼쪽부터). ©TGC

교수, 리더머시티투티 이사장 팀 리더십을 형성해 왔다. 줄리어스 김 클러 목사, 존 파이퍼 디자이너링가 박사는 오는 2월 1일부터 TGC 대표 설립자, 케빈 드 영 목사 등이 핵심 역할을 맡게 된다. 강혜진 기자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저파 선별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동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서울 호텔 건너편)

그린카피어 리스 & 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할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OLYMPIC ZION AUTO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SE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Tune-Ups
■ A/C Service
* 월~금 : 8AM~6PM, 토 8AM~4PM * 32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 (323) 730-0112, (323) 735-3180

Grace Mission University
ats ATS정회원 ABCTE ABCTE정회원 TRACS정회원 CHEA National High Education Accreditation BPPE ED.gov
2020년도 봄학기 신입생 및 편입생 모집 중
미국의 뛰어난 복음주의 신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추천 한인 신학교 최초로 칼그랜트 승인 !!!
- 연방정부에서 재원하는 Pell Grant 와 별도로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Cal Grant(칼그랜트) 승인
- 자격이 되는 학생들은 GMU에 입학하게 되면 연방정부 차원에서 Pell Grant와 주정부 차원에서 Cal Grant 두 가지 Grant 를 동시에 받을 수 있음
- Cal Grant 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California Student Aid Commission의 홈페이지(https://www.csac.ca.gov)를 참고(GMU School Code: 04157800)
칼그랜트 신청 및 안내 세미나
■ 일시 및 시간 : 1월 27일(월), 오후 2시~3시 30분
■ 장소 : 그 레이스미션대학교 도서관 GL2 강의실 (도서관 주소 : 201 S. Basque Ave, Fullerton, CA 92833)
■ 연락처 : 714-525-0088 (대표전화), 도서관 : 714-515-5431
■ 주요 내용 : 학교 소개 및 현황, Cal Grant 소개 및 자격, GMU 입학 안내, 질문과 답변
입학 문의 : 714-525-0088(대표) admissions@gm.edu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www.gm.edu

남가주 밀알선교단 총 80명에 13만 8천 달러 장학금 전달

2020년도 밀알 장애인 장학복지기금 수여식 열려



감사한인교회에서 진행된 2020년도 밀알 장애인 장학 복지기금 수여식

남가주 밀알선교단은 지난 20일, 감사한인교회(구봉주 담임목사)에서 2020년도 밀알 장애인 장학복지기금 수여식을 갖고 미주 장애인 장학생 7명, 근로복지생 3명, 꿈나무 장학생 30명, 장애인 선

교사역자 육성 장학금 20명, 제3국 및 중남미 장학생 10명, 긴급지원 대상 추가 기금 10명 등 총 80명에게 13만 8천 달러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정수 남가주 밀알 실행 이사 사회로 진행된 이날 장학금 수여식은 남가주 밀알 찬양팀의 찬양으로 시작돼, '밀알 스토리' 영상 상영과 이준우 강남대 교수의 기도, 김영길 감사 한인교회 원로 목사의 설교 후 이은철 목사가 축도했다.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라디아서 6:9)'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김영길 목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매년 밀알 장학금을 정성껏 마련해 수많은 장애인 학생들을 후원하고 격려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선한 행위"라며 "올해 밀알 장학생들이 더욱 큰 믿음을 갖고 열심히 공부해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의 집을 나누고,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 값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가주 밀알 이종희 단장은 "많은 분들의 사랑과 후원으로 80명이 장학금을 받게 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들이 더욱 큰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학업에 정진해 주기 바란다. 장애우들을 헌신적으로 섬긴 봉사자들에게도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한편 밀알 장애인 장학 복지 기금이 출범한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지급한 장학금 누적 총액은 252만 5천 달러에 이른다.

김동욱 기자

그레이스미션대학교 캘리포니아 주정부 제공 칼 그랜트(Cal Grant) 승인

연방정부 학비보조와 주정부 학비 보조로 등록금 부담 크게 덜어

플러턴에 위치한 그레이스미션대학교(GRACE MISSION UNIVERSITY, 이하 GMU, 최규남 총장)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무상 학비 보조인 칼 그랜트(Cal Grant) 승인을 받고 지난 16일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GMU는 이미 미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무상 학비 보조인 펠 그랜트(Pell Grant)를 승인받아, 지원 자격이 되는 학생들은 GMU에 입학으로 연방정부 학비 보조와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학비 보조를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됐다.

2020년 가을학기부터 적용되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무상 학비 보조 칼 그랜트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펠 그랜트와 달리, 드림 법안으로 신분이라도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라면 무상으로 학비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처장 제임스 구 교수는 "대학을 졸업해도 학자금 대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자격을 갖춘 GMU 학생들은 이번 칼 그랜트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제공하는 칼 그랜트(Cal Grant) 승인에 대해 설명한 그레이스미션대학교 관계자들 좌부터 박사원장 이병구 교수, 학장 김현원 교수, 행정처장 제임스 구 교수

트 승인과 연방정부 무상 학비 보조를 통해 모든 학비를 충당하고도 남아, 오히려 재정 지원을 받으며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된다"며 "대학 진학을 앞둔 많은 한인 학생들이 장학금 수혜를 받게 되길 바란다"고 전

했다. 제임스 구 교수는 이어 "특별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개인 사정으로 대학 입학의 기회를 갖지 못한 분, 직장 때문에 학위 과정을 미루고 있는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GMU는 야간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제공하고 있어 주정부의 장학금 혜택을 받으며 학위 과정을 이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GMU는 오는 1월 27일(월) 오후 2시부터 본교 도서관에서 칼 그랜트

트 신청 및 안내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현장에서 한인들의 입학 상담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견실한 인격, 강한 군사, 세계 선교"를 모토로 1995년에 설립된 GMU는 학교 졸업생의 70%가 현역 선교사, 목사, 저서사, 평신도 지도자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을 정도로 선교 지향적인 대학이다.

그레이스미션대학교는 복음주의 신학교로 미 연방정부 교육국이 인정하는 ABHE, TRACS, ATCS의 정회원 학교로 학사학위 과정은 신학 학사와 기독교 상담학 학사과정이 있으며, 석사학위 과정으로는 기독교 교육학 석사, 선교학 석사, 기독교 상담학 석사과정과 목회학 석사과정이 개설돼 있다. 박사과정으로 선교학 박사과정과 교차 문화학 박사과정이 있으며, 유학생 I-20 비자, 연방정부 무상 학비보조, 100% 통신교육, 영어 트랙이 있으며 다양한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LA 지역 학생을 위한 LA 익스텐션 수업도 진행하고 있다.

김동욱 기자

Christian Healthcare Ministries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크리스천 헬스케어
 *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www.chman.org 714.738.1234
 ACCREDITED CHARITY bbb.org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2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213)531-7215, (213)833-8208
 2975 Wilshire Blvd., #B01., LA, CA 90010
 • 직업전문대학인가(ACICS)
 • 신학교 인가(TRACS, ATS)
 • BPPE 신규 및 재승인
 • 온라인교육 세팅 및 운영
 summitus37@gmail.com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 17차 미주 정기총회

[대표 회장 전광훈 목사]

일시 주후 2020년 1월 25일(토) 오전 10시 30분
 1부: 정기 총회, 2부: 예배, 3부: 성찬식, 4부: 취임식, 5부: 친교 시간

장소 주님의사랑교회(서사라 목사 시무)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Main 과 31st St 코너)

설교
 • 민승기 목사님 - 미기총 회장
 • 심평중 목사 - 전 PCUSA(미국 장로교) 전국 한인교회 협의회 회장 - 제17대 한기총 미주 총회 대표회장 내정

* 구정(설날)이므로 주님의사랑교회에서 떡국, 기념타올을 드립니다.
 * 서울메디컬그룹에서 제공하는 선물을 드립니다.
 * 파킹은 동네 주변에 주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구정(설날) 주님의사랑교회의 주변에 거주하시는 히스패닉 주민들을 초청하여 한마당 떡국 잔치를 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승기 목사 심평중 목사

미주 한인 기독교 총연합회
 Korean Christian Council in American
 대표회장 DR. DANIEL DANGYEOL YOO

총신대학교 가주 총동문회 제5회 정기총회 및 신년하례회 개최

“학부 및 대학원 졸업생 아우르는 총동문회 역할 감당할 것”

총 동문회장 김경일 목사
“화합과 소통의 한 해 되겠다”

총신대학교 가주 총동문회는 지난 20일, LA 한인타운 용수산에서 제5회 정기총회 및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은 김경일 목사가 총동문회 회장으로 연임하는 의견에 뜻을 모았고, 회칙 개정을 통해 기존 '총신대학교 남가주 총동문회'에서 북가주 총신대학교 동문까지 포함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총신대학교 가주 총동문회'라고 명칭을 변경했다.

안건 토의에서는 “한국 사당동 총신대학교 대학부, 대학원, 목회연구원, 신대원, 박사원을 졸업한 자로 한다”라는 정회원 자격을 재확인하며, 학부 및 대학원 졸업생 모두를 아우르는 총동문회 역할을 감당하기로 했다. 동문회는 또 사당동 총신에 입학 했으나 졸업을 마치지 못한 자에 한해 입원회의 심의를 거쳐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김경일 목사는 “사당동 총신대학교를 졸업한 모두가 총동문회 안에



총신대학교 가주 총동문회 제5회 정기총회 및 신년하례회 기념촬영

서 화합하고 소통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연임 소감을 전했다.

총신대학교 가주 총동문회는 △ 칼빈주의 개혁 신앙을 파수 및 전수한다 △목회와 학계에서 봉사자로서 영적 훈련을 강화한다 △세계를 향한 복음 전파의 사명자를 돕는다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해외

동문들의 공동 이익을 도모한다 △ 이민 사회에서 복음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기 총회에 앞서 진행된 감사에 배는 정우성 목사의 사회로 이재환 선교사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찌할꼬”(시편 11편 3절)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증경회장 양종

석 목사가 축도했다.

이재환 선교사는 “선교사로서 많은 나라를 돌아보며 느끼는 점은 세상의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이미 터가 무너졌고, 부패한 인간에 의한 파라이스나 유토피아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어떤 나라나 기관이 아니라 교

회”라고 강조했다.

이재환 선교사는 이어 “터가 무너졌을 때의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뿐이라며 “세계 선교의 비전을 향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도록 힘쓰는 교회가 되자”고 덧붙였다.

김동욱 기자

“교인들에게 들리는 설교, 원 포인트로 전달하라”

본지 주최 제2차 LA지역 원포인트 강해설교 세미나 한길교회에서 개최



한길교회에서 진행된 제2차 LA지역 원포인트 강해설교 세미나 참석자 단체사진

“설교는 전달입니다. 원고가 아무리 훌륭해도 들리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원 포인트 설교란 정해진 본문 안에서 전후 문맥과 연결되는 하나의 선명한 핵심 주제를 찾아서 청중들에게 감동이 되고 변화를 가져다줄 수 있도록 가장

효과적인 형식을 갖춰 전달하는 설교를 말합니다.”

본지가 주최하고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와 한길교회가 후원한 제2차 LA지역 원포인트 강해 설교 세미나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남가주 지역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길교회(담임 박찬섭 목사)에서 진행됐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설교학 신성욱 교수는 성경적이고 효과적인 설교 작성 전략을 비롯해 최신 예화 활용으로 설교를 변화시키는 전략 등 성경 본문의 핵심인 원 포

인트로 흘러가는 드라마틱한 설교 원고를 작성의 이론과 실제에 대해 강의했다.

신성욱 교수는 또 드라마틱한 설교 원고를 작성의 이론과 실제, 명설교를 위한 인문 고전의 필요성을 포함해 신선한 설교 제목 선택의 중요성, 최신 예화 활용 등 감동적인 설교를 위한 설교 기법을 전달했다.

신 교수는 “설교는 성도들의 귀에만 잘 들리는 설교는 비성경적인 설교로 치우칠 수 있고, 딱딱한 성경 주해는 마음을 움직이지 못할 뿐 아니라 자칫 지루해질 수 있다”며 “본문을 역사적, 문법적, 문학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성경 본문의 핵심을 제대로 전달하면서도 감동과 흥미를 더해 교인들에게 영적인 진리를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설교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많은 서브 포인트가 아니라 메인 포인트이자 핵심인 원 포인트”라며 “삼대지 기법에 맞추느라 핵심을 놓칠 것이 아니라, 본문

의 핵심을 가지고 들리는 설교, 즉 청중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원 포인트로 드라마틱한 설교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성욱 교수는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M.Div.)을 공부하고, 트리니티 에반젤리컬 디비니티 스쿨에서 구약학 신학석사(Th.M), 칼빈신학교에서 신약학 신학석사를 공부했으며 남아공에서 설교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미국에서 구약학(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수학)과 신약학(Calvin Theological Seminary)으로 석사학위(Th.M)를, 남아공에서 수사학적 설교(Univeristy of Pretoria)로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저서로는 《청중을 사로잡는 설교의 삼중주(생명의 말씀사)》, 《다빈치 코드 가 뭐길래?(생명의 말씀사)》, 《성경 먹는 기술(규장)》, 《이동원 목사의 설교 세계(생명의 말씀사)》 등이 있다.

김동욱 기자



기독일보 창간 16주년을 축하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한반도”

2020년 희망찬 새해를 맞아, 동포여러분들의 모든 가정과 사업이 더 크게 비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독일보 창간 700호 신문을 축하드리며 해외에 있는 한국인의 위상과 동포사회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기독일보 신문이 되길 바랍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로스앤젤레스협의회
에드워드구 회장 외 자문위원 일동



✉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141

“선교부흥이 곧 교회부흥이다”

필자는 지난 2주간 이스라엘 단기선교를 다녀왔다. 2007년도에 교회에서 담임목사 안식년 성지순례를 결정하고 갈 기회가 있었으나 그때 시작한 실크 웨이브 미션의 연합 중보기도회가 터키에서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교우들을 설득하여 선교지를 전격 터키로 바꾸어 다녀온 후 지난 13년간 터키와 다른 나라들 선교에 집중하다가 이스라엘은 이번에 처음 가게 되었다.

사실 이스라엘이라 했지만 그 나라 안에는 팔레스타인 민족의 자치지역이 있어서 양 민족을 한주씩 나누어 방문하고 돌아왔다. 공항에서부터 여행객과 전도자의 자세는 어느 나라나 다르지만 이스라엘 Ben Gurion 공항은 한층 더 엄중한 느낌이 들었다. 필자 교회의 교우들은 같은 시기에 7명이 각기 다른 나라를 섬기러 다녀왔다.

지역교회와 전문 선교단체와의 연합과 협력은 앞으로 선교전략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에 필자는 교회의 선교사역을 오래전부터 전문인 선교단체와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목회자가 아무리 선교를 잘 이해하고 안다 하여도 각 선교지의 실정과 상황은 현장 선교사들이 가장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선교사들을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후원하고 관리하는 전문인 선교단체의 선교 프로그램에 교회의 인적자원들을 배치하게 될 때에 피차가 가장 건강하고 활력 있는 선교사역을 동역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다.

필자는 섬기는 몇 선교단체들을 신뢰하고 특히 그 리더십들을 적극 지지한다. 필자는 전문인 선교단체와의 협력선교를 하기 이전에 교단 파송이나 개인적 선교사들과 교류하여 교회 단기선교팀을 구성하고 매년 방학기간에는 중고등부 청년들의 단기선교와 연휴를 이용한 성인팀의 단기선교를 20년 가까이 진행해왔다.

물론 선교지의 특성과 선교사역의 내용에 따라 장단점이 있겠지만 선교 열매의 효과 면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에서 개교회의 성도들만으로 구성된 선교보다는 전문인 선교단체의 선교지 중심으로 서로 몰랐던 여러 교회 성도들이 한데 모여 때마다 다른 이들이 한 팀이 되어서 복음전도팀을 구성해 선교를 하게 될 때의 영적 시너지는 경험하지 않고서는 사실 잘 모른다.

이번에 다녀온 우리 교우들도 각기 인도, 모로코, 터키, 아프간, 이스라엘, 요르단, 튀니지 등으로 처음 만난 동역자들과 한 팀이 되어 현지 장기전문인 선교사들의 지도와 훈련을 받으며 복음전도를 하고 왔다.

다녀온 후 교회는 한동안 각 선교지에서의 사역보고와 간증 모임을 통해 선교부흥회가 이어지게 된다. 필자는 그 맛을 안다. 비록 2주 혹은 3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그 선교를 수행하기 위해 그들은 매년 9주간의 비전스쿨을 마쳐야 하고 그 후에 4주간 단기선교훈련을 받고 인터뷰(선교단체가 만든 매뉴얼에 따른 질문들)에 통과해야 하고 그리고 각 선교종족에 따라 팀장이 이끄는 종족 단기선교 훈련을 마쳐야 그 선교회의 단기선교를 참여할 수 있다.

그런 과정을 이해 못하고 너무 까다롭고 힘들다고 불평하는 이가 간혹 없지는 않지만 단기선교를 다녀온 후에 그들이 깨닫는 교훈은 실로 크다.

짧은 단기선교라도 영적 훈련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충만한 상태로 다녀와야 함을 경험자들은 한결같이 고백한다.

이런 양질의 전문 선교훈련을 일선의 목회자들은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전문인 선교단체와 협력하고 연합하는 선교정책을 교회들이 가져야 한다.(계속)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행복 만들기 (8) 몰입

몰입의 방법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옛날 한 청년이 지혜로 유명한 왕을 찾아가 성공의 지혜를 가르쳐 주기를 간청했습니다. 왕은 말없이 잔에다 포도주를 가득 따라서 청년에게 건네주며 군인을 불러 명령합니다. “여봐라! 이 청년이 포도주잔을 들고 도시를 한 바퀴 도는 동안, 칼을 들고 청년의 뒤를 따라라. 만약 저놈이 포도주를 한 방울이라도 흘리는 순간 가져없이 목을 쳐라!”

갑작스러운 상황에 청년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화도 났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식은땀을 흘리며 조심조심 포도주잔을 들고, 도시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한 방울의 포도주도 흘리지 않으려고 온 마음과 정신을 모아 도시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청년은 도시를 한 바퀴 돌고 다시 왕 앞에 섰습니다. 청년은 땀을 비 오듯 흘렸습니다. 왕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청년에게 묻습니다. “시내를 도는 동안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 말해 보아라.” 비 오듯 땀을 흘리는 청년이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죄송하오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왕은 큰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너는 거리에 있는 거지도, 장사꾼들도 못 보고 술집에서 노래하는 것도 못 들었다는 말이나?”

“네 포도주에 집중하느라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청년이 절절하며 대답하자, 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그것이 인생의 교훈이다. 네가 거리를 한 바퀴 돌며 네 정신을 그 잔에 집중시킨 것처럼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에 집중하면 성공할 것이고, 유혹과 악한 소리도 네게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내가 주는 교훈이다.”라고 했답니다.

몰입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이

야기입니다. 크고 작은 성공과 삶의 행복 저변에는 몰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몰입을 방해하는 도구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휴대폰은 그중에 하나입니다. 예뻐나 독서 심지어 대화에 몰입하지 못합니다. 근래 행복학자들은 몰입을 통한 행복을 강조합니다. 최근 크리스 베일리가 쓴 “Hyper Focus”에 몰입의 노하우를 소개합니다. 몰입의 방법들을 정리해 봅니다.

첫째 잠시 스마트폰과 거리를 두라! 현대인들의 몰입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이 주는 편리함 때문에 스마트폰은 기상에서부터 취침까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거의 매 순간 만지작거립니다. 인류는 스마트폰의 편리함을 가지면서 몰입과 집중을 잃어 버렸습니다. 무슨 일이건 집중하려면 휴대폰을 잠시 멀리 해야 합니다. 몰입의 행복을 누리려면 잠시 휴대폰을 멀리해야 합니다.

둘째 몰입에 유익한 환경을 조성하라! 현대인들의 집중과 몰입을 방해하는 것이 비단 스마트폰이 아닙니다. 현대인의 삶의 환경들이 대부분 편리함과 아늑함을 주지만 주의와 집중을 방해합니다. 따라서 몰입의 기쁨을 누리려면 몰입하기에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함

니다. 책을 읽기 위해 도서관을 찾거나 기도하기 위해 기도원을 찾는 것은 집중에 유익한 환경을 만드는 지혜로운 일입니다. 몰입에 도움이 되는 장소를 찾아야 합니다.

셋째 몰입에 유익한 자료를 활용하라! 카페인 집중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카페인만으로 몰입할 수는 없지만, 카페인이 몰입을 강화하는 좋은 보조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긴장이 풀리는 나른한 시간에 커피 한 잔으로 몰입과 집중을 높일 수 있습니다. 커피뿐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노트와 펜을 준비해서 몰입을 강화하기도 합니다. 필자의 지인은 읽는 모든 책 표지 안쪽에 중요 사항을 메모함으로 몰입을 강화하고 독서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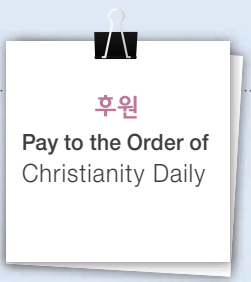
넷째 몰입의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라! 몰입의 행복을 누리려면 몰입이 쉽지 않은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집중하고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주의가 산만해지고 집중을 잃고 맙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휴식을 통해서 다시 집중과 몰입의 단계로 나가야 합니다. 깨어지는 몰입에 당황하지 말고 지속적인 몰입을 시도해야 합니다.

다섯째 기쁨, 재미, 보람으로 몰입하라!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재미를 느끼면 몰입합니다. 격렬한 스포츠나 등산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재미를 느낌으로 몰입합니다. 지루한 일이나 활동에서 기쁨과 보람 혹은 재미를 찾음으로 몰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의미가 부여되는 일에 자연스럽게 몰입할 수가 있습니다.

몰입을 방해하는 것들도 많고 몰입이 쉽지 않지만 몰입하면 큰 유익이 있습니다. 몰입함으로 더 성숙하고 더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사장 : 존 킴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기독교일보 창간 16주년을 축하합니다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다우니제일 교회 DOWNEY FIRST CHURCH

예배시간 안내

- 1부 예배 오전 8:00
- 2부 예배 오전 11:00
- 수요예배 오후 7:30
-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30
- 주일학교 오전 11:00
-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주소 및 전화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안성복 담임목사



“선교적 교회, 모두가 ‘제자’ 되어 모두를 ‘제자’ 삼는 교회”

미주 한인교회 내일의 부흥을 꿈꾼다(3) 토렌스 조은교회 김우준 목사



김우준 목사는 토렌스 조은교회 부임 이후 교회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하나님의 은혜, 고 김바울 목사의 리더십, 모든 성도들의 전폭적인 헌신을 꼽았다.

토렌스 조은교회 담임 목사 취임 3년, ‘매일 웃으며 교회로 향한다’는 김우준 목사(43)를 만났다. 김우준 목사는 사업을 했던 부모님을 따라 9살 때부터 중남미 과테말라에서 성장했다. 중남미 학교에 입학한 첫 한인 학생이었을 정도로 한인들이 없는 선교지에서 18살까지 지내며 다양한 선교 활동에 참여하게 됐고, 복음 전파와 제자 양육을 향한 꿈을 심게 됐다.

제자도와 선교를 말할 때는 복음 전파를 향한 불같은 열정을 쏟아내면서도 ‘사역은 100미터 전력질주가 아닌 마라톤 이기에 “천천히 더 천천히”를 되뇌는다’는 그에게서 젊은 목회자의 겸손과 지혜를 엿볼 수 있었다.

UC 버클리에서와 스탠퍼드를 졸업하고 사우스웨스턴 침례신학대학교에서 신학 석사와 박사 과정을 졸업했다. 신학교 입학 전 스탠퍼드 대학 퍼블릭 스피킹 강사, 스탠퍼드 교육 연구소 연구원으로 활동했으며, 달라스 제일 장로교회 중고등부 전도사, 열린 지구촌교회 영어부 목사, 워싱턴 지구촌교회 부목사를 역임했다. 이하는 일문 일답.

-조은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 철학과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설교시간에도, 리더 훈련에서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이 ‘모두가 제자 되어, 모두를 제자 삼는 것’이다. ‘내가 제자가 되어, 제자를 삼는다’는 비전은 나의 목회 철학이자 조은 교회의 구심점이고 핵심 가치다.”

-토렌스 조은교회의 제자 양육 과정을 소개한다면?

“제자양육은 성경공부가 아니다. 또 제자훈련 과정을 이수하거나 성경 공부를 마쳤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성경공부는 당연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다.

만약 내가 목자라면 목자로서 해야 할 일은 한 명의 부목자를 제자 삼는 것이다. 사역의 팀장이라면 한 명의 사역팀 멤버를 제자 삼는 것이다. 또 그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함께 사역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목자가 목원한테 ‘전도 합시다!’라고 구호만 외치지 않고 ‘이번 주 노방전도 나가는데 함께 갑시다!’라고 먼저 사역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사역을 공유하면서 섬김으로 제자 훈련의 길을 함께 걸어간다. 성

경공부만으로는 지식의 확장만 일어날 뿐이다. 섬김과 사역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렇기에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키우기 위한 모델이 되어야 하고, 훈련과 방향을 제시하는 코치와 감독의 역할도 해야 한다. 제자 양육의 과정이 먼 것 같지만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게 된다.”

-전도, ‘어렵다’고 말한다. 전도 어떻게 시작하고, 왜 해야 하나?

“제일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하게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삶은 좋아하지만, 입술로 복음을 전파하는 순간 어마어마한 부담을 갖게 된다. 왜냐하면 ‘복음을 나눈다’는 것을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전도 훈련을 안 받았는데’, ‘나는 성경 지식이 부족한데’라는 자책감에 주저하게 된다.

하지만 전도는 가장 헌신되고 성숙한 극소수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전도는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 하면 된다. 성경에서 처럼 오늘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전도할 수 있다. 예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지만 호사로 부르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

미주 한인교회의 바람직한 리더십 계승을 위한 해법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합니다. 그동안 성공적인 목회 리더십 교체에 따른 미담 사례도 있었지만, 준비 없이 맞이한 교회 리더십 교체는 교계에 적잖은 논란을 불러왔고, 그로 인해 교회와 성도들은 진통을 앓아야 했습니다. 이에 본지는 차세대 목회자들을 통해 앞으로 미주 한인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진단하고 성공적인 교회 리더십 교체에 필요한 성경적 방안을 모색합니다. -편집자 주-

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나를 증거 하면 된다.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할 수 있다.

제자가 되어 복음 전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며 제자의 삶을 살게 된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더욱 알게 되고 우리의 삶은 다듬어진다. 복음을 전파하면서 삶을 영망으로 살게 되지 않기 때문이다. 조은교회 노방전도에는 어린아이부터 90대 노인까지 동참하는데, 지상 명령은 누구와도 타협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특권이자 영광이다.”

-한인 이민교회 내 선교적 교회에 대한 관심이 크다.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은 모든 교회의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과제다. 선교는 지역 선교, 국내 선교, 해외 선교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선교적 삶이란 선교 여행을 다녀왔다고 끝이 아니다. 선교적 교회는 모든 성도가 선교사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매일의 삶 속에서 가정과 직장에서 선교 사명감으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핵심이다.

선교적 교회는 지역 사회로 나아가야 교회다.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다가 천국 가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도 있다. 한인 교회가 실제로 하기에 어려운 부분도 있다. 그렇지만 세상이 보고자 하는 것은 ‘교회가 존재함으로 그 지역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다.

더욱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다가가야 한다. 소방서와 경찰서와 같은 지역 관공소를 찾아가 격려할 수 있고, 작더라도 주변 학교에 헌금을 보낼 수 있다. 조은교회는 근처 해변과 공원에 나가서 쓰레기를 줍기도 한다. 작은 몸부림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능동적으로 하면 좋겠다. 작은 일이라도 세상은 교회를 주목하고 있다.”

2세는 선교지 중에 선교지 다음세대의 핵심가치 ‘하나 됨’

-한인 이민교회가 풀어야 하는 시급한 과제를 꼽는다면?

“한인 2세, 3세, 즉 다음 세대다. 전 세계적으로 젊은 층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유년부, 유치부가 사라지고 청소년부도 위기라고 한다. 중고등부 학생까지는 부모님 성화에 못 이겨 교회에 끌려라도 나오지만 대학교에 진학하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난다. 그러다가 30-40대 많은 2세들이 교회로 돌아오기도 했다. 아이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에는 아이가 생겨도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다.

2세는 선교지 중에 선교지다. 미국 한인교회 가운데 EM 청소년부를 제외하고 성인 영어부가 있는 교회 몇 개나 될까? 1세들은 이렇게 많은데 2세들은 모두 어디 간 것일까? 교회마다 차세대에 대한 생각은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투자하고 실천하고 있는지는 돌아봐야 한다.

-차세대 육성의 키워드,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하나 됨이다. 한인교회 내 많은 EM 교회의 추세는 독립이다. 같은 건물을 사용하지만 법적으로나 서류상으로는 무엇보다 심적으로 독립되어 있다. 1년에 한두 번 연합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법적으로 다른 교회라고 생각한다.

EM이 독립하려는 이유는 언어와 정서가 다르기 때문이다. 1세들은 ‘2세는 예의 바르지 못하고 헌신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2세들은 ‘1세는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이며 평소에 관심을 갖지 않다’고 일만 시킨다’고 생각한다.

EM이 재정적으로 안정되면 교회 건물을 떠나 독립을 하는데 대부분 5년 안에 문을 닫게 된다. 분립과 독립, 폐쇄를 반복한다.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핵심 가치는 ‘하나 됨’이다. 1세와 2세가 서로 동역하는 교회, 정말로 하나 되는 교회다.

김동욱 기자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기독일보 창간 16주년을 축하합니다

이사의 명가(名家) 가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씨애틀, 달라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저가 차량 운송
-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문의 1-877-580-2424 사우스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samsungmoving@gmail.com



인내로 얻는 구원

누가복음 21:10-19



서울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건물의 아름답고 웅장한 자태를 자랑스럽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눅21:5).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눅21:6)”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성전에 대한 기대가 허물어지는 충격을 받고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어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눅21:7)”하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좇지 말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눅21:8-9)”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끝 날이 다가올수록 영적인 혼란의 시대가 올 것이며 거짓 선지자들과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이단이 난무하여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낙오자가 되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를 애타는 심정으로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난리와 소란의 소문은 듣지만 그것으로 인해 두려워 할 것은 없고 단지, 그러한 일들이 시대적인 징조로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워 주고 있는지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본문 10-11절은 전쟁과 천재지변을 통한 징조가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 있는 말세의 징조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일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도의 본분을 다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살펴보면 복음의 초기에 로마 황제들을 통한 시련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련과 박해 가운데 믿음은 가장 정통했었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마리아를 지나 온 유다와 땅 끝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놀라운 사역을 이룰 수 있었지만, 오히려 AD313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하면서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권력을 배경으로 할 때 반드시 세속화되고 타락한다는 사실을 지난 교회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압제 하에서의 한국교회는 생기와 소망이 넘쳤습니다. 신사참배 거부로 인한 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갔고 그 당시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왔습니다. 해방 후 장로가 대통령이 되고 목사님들이 부통령으로 이어가면서 한국교회는 세속화되어

갔고 부패하고 타락해 갔습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그 시대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은 6.25전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란한 이 시대에 정신 차리고 빛과 소금의 구실을 교회가 착실히 감당할 수 있기 위하여 세상 조건이나 권력, 물질에 기대 걸지 말고 오로지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시기를 애타게 기대하며 믿어지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환란과 박해, 시련이 있음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3:12의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려가는 일들이 생기면 추수 때가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육신이 원하는 세상조건은 버리고 영적인 소망으로 후회 없는 결실을 위해 믿음만을 목적으로 서둘러 신앙무장으로 결실하기를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축복과 더 살기 좋은 조건이 허락되어져서 살기 좋은 세상이 왔다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할 것은 자칫하면 신앙이 해이해져서 영적인 기준보다는 육신의 현실적인 조건에 편승해 버리고 타협할 소지가 있기에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끌려가 고문을 받게 될 때 세상에 아무 것도 기대 걸 조건이 없고 하늘 소망 하나뿐이라고 하면 순교라는 한 가지 목적으로 기도하며 담대히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나라가 있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다면 참으로 멋진 인생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14절의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는 말씀은 환란과 고통을 면하기 위해 신앙을 변절한다면 그 당시 죽지 않을 수 있을지라도 결국 예수님을 저버리고 영적소망과 구원을 무효화시켰기 때문에 참으로 불쌍한 죽음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 있든지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은 하나님이 쥐고 계신 목숨입니다. 아무라도 죽이고 싶다고 죽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게 하셔야 죽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죽음에 처한 상황을 벗어나고자 애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살아야 할 사람들에게는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19-20에 “너희를 넘겨 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13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순교의 제물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순교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순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피하게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순교적 신앙을 각오하고 사는 지혜로 세계 인류 복음화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4이하에 보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 년 동안 왕 노릇” 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 짧은 인생 길속에 환란과 핍박, 푸대접이 있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정절을 지켜 천 년 동안 왕 노릇하며 살아가 수 있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16-18절에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맺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는 말씀 중에 보면 ‘너희 중에 맺을 죽이게 하겠다’는 대상과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는’ 대상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어찌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불공평한

듯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차라리 죽임당한 사람이 향기로운 제물로 영광스러운 결실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 년 동안 왕 노릇할 수 있는 자격을 허락받았고, 하나님께서는 더 귀하고 사랑스러운 축복의 대상으로 그 사람을 받으셨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에서 ‘인내’는 하나님 뜻으로 처분을 기다리는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순교의 제물로 데려 가시고자하는 뜻이라면 감사함을 찬송하며 죽어가게 하시어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해달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33-38을 보면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책찌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다)” 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은 승리를 보장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육신적인 것을 생각하며 주님을 찾지 말고 영적인 소망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숙한 신앙을 가꾸어 가자는 것입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한 국 방 송 설 교		한 국 신 문 설 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미 국 방 송 설 교		라 디 오 미 국 방 송 설 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오후 4시30분 / 동부오후 7시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AM1310 기본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토요일 서부오후 6시 / 동부오후 9시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미 국 신 문 설 교			
기독교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웨스턴길, 1가와 2가 사이, 더 넓은 곳으로

확장기념 플로어 30% 세일

수술 않고 해결합니다! 척추통증·좌골신경통

2020년형 전자동 전동거꾸리 Z-UP

영국의 뉴캐슬 대학에서 임상실험으로 허리 수술을 예정했던 환자의 80% 이상이 척추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후 유럽에서는 척추질환 치료 DP수술 대체 치료로 Z-UP 전자동 전동거꾸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통증을 유발하는 척추디스크는 반듯하게 제자리로 가라!

하루 5분

허리 통증, 손발저림 통증, 모든 통증을 없앨 수 있습니다

월~토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무료 체험

허리 오세요

“이 전역 딜러 모집” 자기방어용 신변보호장치 전기충격기!!!

“지난 20년간 한인타운 스테디셀러” 후지미 마사지체어 최초 플로어 세일

한국인 체형에 가장 맞는 마사지 체어 Massagechairtechnicians.com에서 2019년 미국 내 No.3

*Fujimi.us의 GT 700 massagechair LOLC Edition 플로어 전시품에 한함.

\$10,500 \$5,900 TAX 및 배달료 포함

LOLC Inc. | Tel. 213-700-8382
For the Spirit & Body | 147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웨스턴길, 1가와 2가 사이)

HAPPY NEW YEAR

2020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차종에 따라 60개월까지 0%이자가가능

HAPPY NEW YEAR SPECIAL SALE



NEW 2020 HYUNDAI ELANTRA SE

Lease **\$148** +Tax **0 Down** **\$22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0,005**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3,7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VOC,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19 HYUNDAI SONATA SE

Lease **\$178** +Tax **0 Down** **\$25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3,715**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4,7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VOC,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20 HYUNDAI TUCSON SE

Lease **\$198** +Tax **0 Down** **\$27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4,7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2,2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VOC,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20 HYUNDAI SANTA FE SE

Lease **\$218** +Tax **0 Down** **\$29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7,1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3,00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VOC,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STEVE CHANG
213.235.6825



PAUL KIM
714.331.3855



MIKE LEE
714.914.8414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HYUNDAI Assurance



HYUNDAI

1-888-644-7114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그레이스미션대학 비영리 단체 설립과 운영 공개 강의

2월 8일(토) 오전 9시 30분
LA 확장 강의실

그레이스미션대학(Grace Mission University, GMU)은 오는 2월 8일(토)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비영리단체 설립과 운영(Management for Non-profit or organization)에 대한 공개 강의를 개설한다.

GMU LA 확장 강의실(302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175)에서 진행되는 공개 강의를 비영리 단체 설립과 운영에 관심이 있는 목사, 선교사, 신학생, 전문인, 학교, 비영리단체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공개 강의를 GMU에 재학 중인 Master of Arts in Intercultural Studies (MAICS) 학생들에게는 필수 과목이나 학생이 아닌 모든 분들에게 수강 신청이 가능하며, 열에 이 강의에 직접 참가(On Campus)하거나 인터넷 혹은 스마트 폰, 아이폰을 통해서 통신 수강할 수 있도록 돕게 된다.

강의에서 다루될 주요 강의 내용은 ▶비영리 단체의 목적과 필요성



비영리 단체 설립 및 세금 면제 절차에 설명하는 그레이스미션대학 제임스 구 교수

▶비영리 단체의 종류와 범위 ▶비영리 단체의 설립과 법적 의미 ▶비영리 단체의 기획 및 전략, 재정, 세무 회계 ▶비영리 단체의 운영의 실제 ▶ 후원자 개발과 관리 등 비영리 단체의 운영에 대한 전체적이고 실제적인 강의가 진행된다.

강의를 담당하는 제임스 구 교수는 현재 GMU 행정처장과 교회 행정 및 커뮤니케이션, NPO, 비즈니스 선교 담당교수로 사역하고 있으며 선교와 목회를 위한 정보센터(Information Center for Mission and Ministry) 대표로 비영리 단체

설립, 변경 및 IRS Tax Exempt 무료 강의를 주관한다.

강의와 관련한 기본 안내자료는 당일 참석자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강의와 관련된 자세한 책자 정보를 원하는 경우 아마존(Amazon.com)에서 구(James Koo) 교수 이름으로 검색하면 'NPO & Tax Exempt: A Practical Guidebook from Incorporation to Tax Return'을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으며 행사 참석자는 당일 구입이 가능하다.

문의: (714) 525-0088
admissions@gm.edu

TEE 지도자 세미나 “2020년 양육과 훈련으로 굳건한 교회 세운다”

오는 1월 부터 3월까지 라스베가스, 애나하임, 뉴욕서 개최



2020 새해를 맞아 한국에서 열린 TEE 지도자 세미나

미주지역 2020 TEE 지도자 세미나가 라스베가스(1월), 애나하임(2월), 뉴욕(3월)에서 각각 열린다. 이 세미나는 지난 18년간 한국과 미국에서 사역해 오고 있는 KTEE 미니스트리(디렉터 한순진 목사)가 주최한다.

TEE는 교회 일꾼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세울 수 있을지를 고심하던 선교사님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처음에는 남미 시골에서 랄프 윈터(Ralph D. Winter) 박사에 의해 찾아가는 신학교육으로 시도되었고, 임상을 거치면서 토니 바렛(Tony Barratt) 선교사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 학습교

재로 개발되었다. 또한 테드 워드(Ted Ward) 박사가 교육적인 면을 제공하면서 효과적인 도구와 방법으로 발전하게 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현재는 KTEE 미니스트리를 통해 3,500여 한국교회와 4백여 미주 한인교회가 TEE를 시행하고 있다. 쉬운 접근 방식과 흥미로운, 그리고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되어 있어 전 세계 110여 개국에서 80여 언어로 사용되고 있다.

한순진목사는 “TEE는 태생상 지역교회에 초점을 두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떤 그룹이나 상황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며 “2020년을 맞

아 향후 10년간 TEE가 한국교회와 미주 한인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며 재건하는 일에 긴요하게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이 세미나는 △라스베가스(NV) 1월 23-24일 언약 한인교회(담임 이재광 목사), △애나하임(CA) 2월 6-7일 아름다운교회(담임 이봉하 목사), △뉴욕(NY) 3월 16-17 뉴욕한인제일교회(담임 송인규 목사)에서 각각 열린다.

세미나 시작 시간은 오전 9시30분이며, 세미나에 관한 문의는 전화 714-350-4211로 할 수 있다.

▶홈페이지 www.ktee.org 이인규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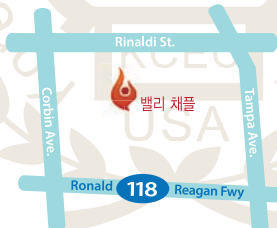
제45대 남가주 한인 장로협의회 회장 이취임 감사예배

이임회장: 김영균 장로
취임회장: 정도영 장로

●일시 : 2020년 1월 26일(주일) 오후 5시

●장소 : 주안예교회(담임 최혁 목사 T.(818) 363-5887)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문의 : T.(213)761-5656, (213)321-2329



남가주 한인 장로협의회
Korean Christian Elders in California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Z로 활짝 웃으세요.

- 당뇨의 근본적인 치료
- 비만의 개선
- 전립선 질환 개선 및 알츠하이머의 예방
- Cyclo-Z 세계최초 당뇨치료를 위한 생약제제

프로지 PRO-Z

혈당수치 조절 및 혈당관리의 시작
나이와 상관없이 없으며 빠를수록 좋습니다.
당뇨병 환자 10명 중 3명은 자신이 당뇨병 환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연령대별 당뇨병	30~44세	45~64세	65세 이상
환자 인지도	54.4%	73.2%	81.3%

특히, 30~44세의 젊은 당뇨병 환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환자가 당뇨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병 \$69+Tax
3병 \$180+Tax
6병 \$350+Tax



핵심은 아연의 흡수
(CNP 특허물질 아연의 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

문의 전화 213.434.1170
3020 Wilshire Blvd., #160, L.A. CA 9001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LOS ANGELES MONTEREY PARK GOLF ACADEMY 일반인·주니어를 위한 특별 맞춤 골프 프로그램

- 대상 : 일반인·주니어 레슨(8살~18살)
- 시간 : 평일 레슨(화~금), 주말 레슨(토)
- 장소 : Monterey Park Golf Club (LA한인타운에서 차로 15분 거리)
- 골프 선수를 꿈꾸는 꿈나무, 대학진학 전문상담
- PGA 투어 출신 프로가 체계적인 스윙 교정, 숏 게임, 필드 레슨까지



Robert Sul
University of Las Vegas Golf Team's
2 Times 백상배 챔피언
2009 KPGA TOUR
AJGA all-American
Golf Digest Top Ten Amateur



T:(310)749-2522

KAPC 남가주 노회 신년하례회 개최

내달 총회 산하 서부지역 목사 장로 연합기도회 주관



KAPC 남가주 노회 2020 신년하례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남가주노회(노회장 최동진 목사)는 지난 20일, 50여 명의 회원 부부가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회를 가졌다. 노회원들은 원로 목회자들의 새해 덕담과 신입 회원들의 인사를 나누며, 더욱 북돋움적이고 성경적인 신앙을 다질 것을 다짐했다.

이날 모임에서 설교한 최동진 목사는 “복음의 약속을 가진 목사로서 한 마음이 되어, 사랑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한 해가 되자”고 권면했다.

한편 KAPC 남가주 노회는 오는 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총회 산하 서부지역 연합 목사장로기

도회를 주관하게 된다. '동성애 문제'로부터 어떻게 교회를 지켜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기도회는 TVNEXT 김태오, 사라 목사가 강사로 나설 예정이다.

KAPC남가주 노회는 24개 교회, 80여 명의 목사회와 노회 파송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다. 김동욱 기자

美 백악관, 공립학교서 '기도할 권리' 보장 새 지침 소개

공립학교서 교사·학생 기도 제재 못하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백악관 영상 캡처

미국 백악관이 국가종교자유의 날인 16일 공립학교의 교사들과 학생들의 기도할 권리를 신장하고 차별적 연방 규제를 철폐하도록 고안된 일부 규칙과 메모를 공개했다고 미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오피스에서 여러 형태의 차별로 고통받아온 기독교인, 유대인, 무슬림 학생들과 만남을 갖고, 종교의 자유를 증진시키는 새 규제와 지침을 소개했다.

이 가운데 미 교육부가 50개 주 관리와 행정관들에게 "공립학교 교사나 학생들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고 강조하는 메모를 발송할 것이라는 발표도 있었다.

목표는 학교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학생들의 기도권을 더 안전하게 보장하고, 공립학교 행정관들이 학생들의 종교자유를 침해할 경우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행정부는 또 9개 연방기관에서 발생하는 법률 초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초안은 종교 단체 및 사회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대한 규제의 완화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기도할 권리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당국은 학생들과 교사들의 기도를 금지시키고, 신앙을 따르거나 공유하지 못하게 해놓았다. 이는 전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 축구장에서 기도하지 못하게 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우리는 이(기도를 제재하는 것)를 막기 위한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화전쟁이 있다"면서 "종교적 표현을 처벌하고 제한하고 심지어 금지시키려는 극좌파의 전체주의적 충동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분들은 기도를 강하게 믿는 편이 있다. 그러나 이는 제한돼 있으며 더욱 악화되고 있다. 난 우리가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한다. (규제가) 많이 완화되었고, 이를 완전히 풀고 싶다"고 덧붙였다.

미 교육부는 그동안 공립학교 내 기도 관련 2003년도 지침을 개정해 왔다. 이 지침은 "지역의 교육기관은 1965년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반드시 헌법적으로 보호받는 기도의 참여를 금지하거나 부인하는 어떤 정책도 갖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학생이나 고용인이 '헌법적으로 보장받는 기도'에 참여할 권리를 거부하는 지역 교육기관을 국가에 보고해야 한다는 요구를 강조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매년 11월 2일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이에 이미 연방법에 기도할 권리가 보장돼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미시간 법대 교수인 프랭크 라비치(Frank Ravitch) 박사는 타임지와 인터뷰에서 "개인적인 기도는 이미 수정헌법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정부 관계자가 개개인의 학생의 기도할 권리를 중재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라고 말했다.

그러나 백악관 국내정책위원회(Domestic Policy Council) 조 그로건(Joe Grogan) 책임자는 미 공영라디오 방송 NPR과의 인터뷰에서 "학교 내 기도를 보호하는 현행법은 낙오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아래 만들어졌다. 이는 종교 및 종교 단체에 대한 적대감의 결과를 가져오면서 얼룩지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국경을 넘어 모든 종교 단체들과 신앙인들을 공공의 영역으로 초대하려고 한다. 그리고 '자, 당신의 견해도 다른 이들의 견해와 똑같이 유효하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들은 수정헌법에 1조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혜진 기자

'제3국 체류' 탈북민 가족 3명, 난민 지위 없이 美 입국

특별 승인 후 망명 절차 밟아

제3국에 체류 중이던 탈북민 일가족 3명이 작년 미 외교관들의 도움으로 미국에 입국해 망명 절차를 밟고 있다고 미국 의소리(VOA)가 최근 보도했다.

이들은 미국에 먼저 정착한 가족의 신원 보증과 현지 미 외교관들의 신속한 지원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행을 원하는 제3국 탈북민이 현지에서 난민 지위를 받지 않은 채 미 정부의 특별 입국 승인을 받아 입국한 뒤 망명 절차를 밟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VOA는 소식통을 인용해 "우선 탈북민들이 질병에 걸려 건강이 좋지 않아 치료와 안정이 필요해서 신속히 이동시킬 필요가 있었다. 또 미국에 먼저 살고 있는 가족들이 성실히 일해 사업체를 운영 중이었고 세금 보고를 착실하게 한 것이, 후원자 역할을 보증하는 데 도움이 됐다. 제3국에서 활동하는 탈북민 구출단체의 중개 역할도 큰 기여를 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난민 지위를 받고 입국한 것이 아니기에 미 국무부가 공개하는 난민 입국 통계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VOA는 앞서 국무부 난민현황자료를 인용, 지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탈북민



탈북 여성 에스더(가명). ©오픈도어즈

은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역대 국가들에 국제 약속을 준수하고 북한인들을 강제소환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인들이 한국과 미국 등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역대 동반국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미국은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 북한을 떠난 탈북민들을 포함한 북한 주민들의 안녕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교회혁신교회

LA 지역	
<p>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심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수,금)</p> <p>김성식 담임목사</p> <p>LA백송교회 백합화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p> <p>3251 W.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245-6616</p>	<p>주일예배 오전 11:00 평신도 리더쉽훈련 매 주 수 오후 7:00 금요말씀과 삶 공부 오후 7:00 토요일집회 오후 9:00</p> <p>씨니김 담임목사</p> <p>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p> <p>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 (323) 833-9090</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내셔널) 오전 9:30 3부예배(자세대)예배 오전 11:30 *한양사각 예배 15분 전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중보기도일(수) 오후 7:30</p> <p>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오전 6:20(토)</p> <p>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p> <p>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만2세를 책임지며, 이만기정을 치료하여,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p> <p>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 Elden 고대) T. (213)386-2233</p>	<p>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장태원 담임목사</p> <p>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p> <p>3407 W. 6t. #412(6가와 카탈리나), LA, CA 90020 T. (213) 909-6473</p>
<p>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3:30 Heart of David 금요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일 마지막주 금요일)</p> <p>최순환 담임목사</p> <p>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p> <p>1521 S. Hill St., LA, CA 90015 T. (310) 905-2228 / newchurchdtdla.com</p>	<p>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새벽 오전 6:20</p> <p>한천영 담임목사</p> <p>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p> <p>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om</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2:00 금요기도회 오후 7:00</p> <p>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유초등부 오후 10:30 중고등부 오후 10:30</p> <p>강진웅 담임목사</p> <p>갈보리민음교회 그리스도와 / 성도와 / 이웃과</p> <p>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p>	<p>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토) 오전 6:00</p> <p>엘리아 김 담임목사</p> <p>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p> <p>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 주택)</p>
<p>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p> <p>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p> <p>진유철 담임목사</p> <p>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p> <p>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p>	<p>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전 11:00</p> <p>성인 EOM예배 오전 12:30 한양청년예배 오후 12:30 친양예배 주일오후 2: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7:00</p> <p>박현성 담임목사</p> <p>나성열린문교회 치유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p> <p>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or.org</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EM 오전 11:00</p> <p>수요일예배 저녁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6:00(토)</p> <p>차성구 담임목사</p> <p>나성제일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 되어 십자가 복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p> <p>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p>	<p>대예배 1부 오전 8:00 새가족 성경공부 오후 1:00 대예배 2부 오전 11:00 중보기도 (목) 오후 1:00 유년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p> <p>정병노 담임목사</p> <p>새일교회 LA Sehil Presbyterian Church</p> <p>765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384-8690, (213)820-7240 Email: lasehil2011@gmail.com (87와 Westmoreland 코너 First Baptist Church 건너 입구4번)</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 EM 오후 12:30</p> <p>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p> <p>정세훈 담임목사</p> <p>새한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영양기상 7:21)</p> <p>2531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386-0685 www.lasaehan.com</p>	<p>1부예배 오전 9:00 청년부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영양부/유초등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p> <p>정인호 담임목사</p> <p>예수마을교회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인</p> <p>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249-9191, www.lajvc.webchurch.kr</p>
<p>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15 중고등부 오전 10:00 유차부, 유년 초등부 오전 11:00</p> <p>EM 평야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p> <p>곽건섭 담임목사</p> <p>에은장로교회</p> <p>1401 W. Washington Blvd., LA, CA 90007 T. (213)745-9997</p>	<p>주일예배 오전 10:45 주일오후예배 오전 1:00 매일 밤 기도회 오후 9:00</p> <p>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월-금)</p> <p>박은종 담임목사</p> <p>예일한인교회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p> <p>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www.wpcjesus.com</p>
<p>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p> <p>김중호 담임목사</p> <p>예향선교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p> <p>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ew@hotmail.com</p>	<p>주일 1부예배 (분당)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분당)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분당) 저녁 8: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리셋에델민예배(소예배실) 오전 11:00</p> <p>정장수 담임목사</p> <p>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깊은 믿음, 마음, 꿈, 열매</p> <p>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00 라티노 오후 6:30</p> <p>GCEM 오후 1:0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신승훈 담임목사</p> <p>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p> <p>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p>	<p>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후 1:30</p> <p>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영양부/유아/이동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매주 화-토 오전 6:00</p> <p>김신 담임목사</p> <p>주향교회 나눔의 행복이 있는 교회</p> <p>3412 W. 4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383-4951 / 4952 F. (213)383-5085</p>
<p>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지역 : 유아원 지역, 후드 지역, 장학 지역, 십자가 지역</p> <p>금요기도회 오후 7:3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화,금) 오전 6:30(토)</p> <p>이명수 담임목사</p> <p>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 천 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p> <p>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p>	<p>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차부/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청년대학부 오전 11: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p> <p>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p> <p>김은목 담임목사</p> <p>평화교회 성령의 진리로 깨어 성령을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행하는 교회</p> <p>2538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251-9191 www.pccj.church</p>
<p>1부 예배 오전 10:30 2부 예배 오후 1:30 성경 공부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신도모이기 만민부 지역 영합한인교회</p> <p>김경렬 담임목사</p> <p>산타모니카한인교회 영혼사랑을 실천하는 교회</p> <p>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p>	<p>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p> <p>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p>

1부예배 오전 9:00 유년부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청년대학부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박효우 담임목사

풍성한 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며 선교하는 교회

2911 Beverly Blvd., LA, CA 90057
T.(213)381-949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유주들부 오전11:00 오전 6:30(토)
중고등부 오전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 동부,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여호와를 찾을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토)

정동석 담임목사

나성교회

1620 N.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T. (562) 690-7979 F.(562) 690-0038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주들부/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내심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성교 새물 받아 함께 달랠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45
중보기도모임 오전 9:15-10:00(주일)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6:30(토)

장주영 담임목사

뉴스송교회
새 시대를 책임지는 건강한 교회

1550 Greenbriar Ave. Corona, CA 92880
T. (951)272-9126 / www.newsongcorona.com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토)

유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창 12:2-3)

5540 Schaefer Ave.Chino, CA 91710
T.(909)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오전 6:00(토)

조응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말씀강해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토) 오전 6:00

안 환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622-2324, F.(909)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토)

고송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목)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수요기도회 오후 7:30 오전 6:30(토)
중국어 성경공부 오후 7:30(화) 汉语圣经班: 周二 晚上 七点半

조준민 담임목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714)461-6412

주일예배 오전 9:00(지성전) 금요예배 오후 7:30
오전 11:00(본성전) 매일QT 월-금 오전 6: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최승묵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꿈에 갈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후 1:00 EM성경공부 오후 7:00(금)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주일 1부 오전 7:00 JCCC Academy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2부 오전 9:00 오전 10:15, 오후 12:40(교육관)
주일 3부 오전 11:00 EM 오전 11:15(교육관)
(Blended Service)
사립부 오전 8:45(교육관)

기쁜우리교회
사람을 살리고 세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아침 오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중고등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 (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오전 9:30 사랑의 빛 주일 오전 11:30
주일 3부 오전 11: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절단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www.lolmc.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집회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오명천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MP채널 333 S. Garfield Ave, Monterey Park, CA 91754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8월 1부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후 1:30
금요성경집회 화 7:30 9월 1부예배 화 7:45
새벽기도회 월 5:30 / 토 5:00 588 Alhambra Ave., Monterey Park, CA 91753
18614 Ramon St., Northridge, CA 91336 9월 2부예배 월 5:30 / 토 5:00
T. (818)363-5887 Fax: (323) 837-9600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중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ghyun.org

中, 종교단체에 공산당 지지 강요하는 행정조치 곧 발효 VOM “각 가정서 기독교 교육할 수 있게 지원해야”



중국의 교회 전경. ©월드와치모니터 제공

중국의 국영 교회와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에 대한 공산당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행정 조치가 2020년 발효된다.

지난해 11월, 중국 국가종교사무국은 ‘종교 단체에 대한 행정 조치’라는 제목으로 13호 명령을 발표했다. 올해 2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이번 명령 제17조는 “종교단체는 중국의 법률과 규제와 규칙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원칙과 정책을 종교 인사와 신자들에게 전파하고, 중국 공산당 지도부를 지지하도록 교육하고, 사회주의 제도를 지속시키고,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 노선을 고수하고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지난 1월 7일, 중국 공산당은 외국 교재 사용을 금지하는 지침을 초·중·고교에 발표했다. 그러면서 ‘시진핑 사상의 정신’과 예로부터 내려오는 중국의 문화적 가치관을 증진하려면 모든 교육 과정은 정치적 검열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 한국 VOM(Voice of the Martyrs Korea) 현숙 폴리(Hyun Sook

Foley) 대표는 “중국의 기독교인들은 자녀들을 국영 교회에 보내 양육시킬 수도, 학교에 맡길 수도 없다.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시진핑이 중국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숙 폴리 대표는 그러나 이 같은 새로운 정책이 궁극적으로 중국 기독교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녀는 “국영 교회와 학교에서 뭐라고 가르치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중국 기독교인들을 위해 모든 것을 사용하고 계신다. 한국의 교회처럼 목회자와 전문가들이 대형 교회에서 기독교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한동안 중국 교회의 추세였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날로 가혹해지는 중국 정부의 규제를 도구로 사용해서, 더 많은 중국 기독교인들이 책임을 지고 가정에서 자녀를 전도하고 양육하게 역사하고 계신다. 우리의 급선무는 중국의 기독교인 부모들이 이 책임을 잘 감당하도록 준비를 갖춰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미경 기자

英, 동성애 진영 반대에도 그래함 목사 투어 허가 셰필드 시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지지”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 페이스북 캡처

영국 셰필드의 동성애 운동가들이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의 영국 투어를 취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최근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그래함 목사는 오는 5월 30일부터 잉글랜드를 비롯해 웨일스, 런던을 방문할 예정이다.

평소 동성결혼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임을 밝힌 그래함 목사는 자신의 아버지인 빌리 그래함 목사가 영국에 여러 차례 방문해 전했던 동일한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매체는 전했다.

그러나 셰필드의 동성애 운동가들은 오는 6월 6일 FlyDSA 경기장에서 열리는 투어 날짜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이 도시의 동성애 커뮤니티 회원 22명이 서명한 서한이 셰필드 시 당국으로 보내졌으며 이 서한에는 그래함 목사를 도시에 환영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 당국은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그래함 목사의 셰필드 투어를 허가했다고 한다. 이 집회와 관련된 셰필드 시 책임자인 데이빗 그레이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그래함 목사의 방문에 대해 지역 신앙 단체와 사우스 요크셔 경찰의 조언을 받아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해 11월 피트 윌콕스 셰필드 주교는 그래함 목사의 방문을 지지할 수 없다고 밝히며 “그래함 목사는 반복적이고 불필요하게 선동적이라 셰필드시의 사회적 화합을 위협한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전했다.

그러나 윌콕스 주교 외에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그래함 목사를 지지해 왔다고. 보도에 따르면 버켄헤드 지역의 케이스 싱클레어 주교는 그래함 목사의 투어를 칭찬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탄생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행사 참석을 독려했다.

이미경 기자

나이지리아 목사, 끝까지 신앙 지키다 참수당해



나이지리아 안디미 목사가 석방을 호소하는 영상. ©유튜브 영상 캡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요구한 몸값 받지 못하자 참수

나이지리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게 인질로 사로잡힌 후 공개된 영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현지 목회자가 결국 처형당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21일 보도했다.

CP는 “나이지리아기독교협회(CAN) 아다마와주(Adamawa State) 지부가 라완 안디미(Lawan Andimi) 목사의 가족들에게 20일 그의 사망 소식을 알렸다”면서 이 같이 전했다.

이 단체의 데데 로게센(Dede Laugesen) 사무총장에 따르면, 범인들은 안디미 목사가 기독교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그의 몸값을 받지 못하자, 삼바사 숲에서 그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들은 몸값으로 200만 유로(약 25억 8000만원)를 요구했으나, 안디미 목사의 교회는 불과 4,969.88유로(약 641만원)만 모금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을 탐사 보도해 온 나이지리아의 아흐메드 살키다(Ahmed Salkida)

기자는 트위터에 “안디미 목사가 월요일(20일) 오후 참수됐다”고 알렸다. 그는 참수 영상을 입수해서 이를 당국에 알렸다고 덧붙였다.

CAN 바요 올라데지(Bayo Oladeji) 대변인은 “안디미 목사의 처형에 관련된 공식 성명을 낼 계획”이라며 “이 같은 신사가 양처럼 살해당했다는 사실은 매우 애처롭고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일제히 규탄 성명을 냈다.

아다마와주 미치카 지역 회장인 안디미 목사는 지난 1월 3일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미치카를 급습했을 당시 실종됐다. 이후 무장대원들이 그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이동하는 모습이 찍힌 영상이 공개됐다.

며칠 뒤 안디미 목사는 납치범들에 의해 공개된 영상에서, 동료 기독교인 지도자들과 주 정부 관계자들에게 자신의 석방을 보장해 달라고 호소했다.

영상 속에서 그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다”며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와 자녀들, 동료들과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신앙을 드러냈다.

강해진 기자

여고생이 경험한, 스웨덴의 급진적 성교육 폐해

학교 내 제3의 성 'Hen' 위한 탈의실 구비 15세 되면 친구들에게 '콘돔' 선물 전통 '머지않아 한국에도 동일한 위협 될 것'

2009년 4월 1일 세계에서 7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스웨덴도, 급진적 성교육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2020 국제 생명주의 성가치관 교육을 위한 포럼'에서 스웨덴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신분으로 단상에 선 주다는 학생은 “이미 막다른 사회에서 학교를 다니는 한국 학생으로서 너무나 낯설고 당황스러웠다”며 “스웨덴의 현실이 머지않아 한국 사회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종을 울렸다.

스웨덴은 국민의 교육비를 대학 과정까지 정부에서 모두 무상으로 책임지며, 학생 1인당 투자하는 교육비가 세계에서 가장 높아 우리나라에는 사회복지가 매우 우수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급진적 성교육과 개방된 성문화는 ‘복지강국’의 어두운 이면들을 보여주고 있다.

스웨덴은 세계 최초로 성교육을 전 아동에게 의무교육화시킨 나라로, 이미 1897년 성교육이 실시됐다. 이 같은 분위기는 성을 생명의 산실로 받아들이며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한 자유롭게 표현해야 한다는 정서가 보편화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지나치게 개방된 성문화로 이어져 남학생의 약 54%, 여학생의 64%가 이미 성경험을 했다고 조사됐다. 주 학생은 “어른들은 이러한 현실을 ‘당연지사’로 받아들이며, 부모는 고등학생 딸의 남자친구가 집에 놀러 오면 밤에 딸과 성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 학생에 의하면 스웨덴 학생들은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피임기술을 배운다. 12살부터는 피임기구, 피임약, 임신테스트, 성병 테스트까지 모두 무료로 제공되며, 다양한 종류의 콘돔과 이에 대한 정보가 실제 주 학생이 다니는 학교 보건실에도 비치되어 있다고 했다. 아이들도 쉽게 콘돔을 구할 수 있으며, 의사의 처방 없이도 피임약을 구할 수 있다.

15세가 되면 자기 의지로 성관계를 할 수 있으며, 이때가 되면 친구들에게 콘돔을 생일선물로 주기도 하는 등, 개방적인 성적 문화가 이미 많은 스웨덴 청소년들에게 자리잡혀 있다고 주 학생은 전했다.

이러한 문화로 인해 정상적으로 결혼

하는 가정보다 삼보(동거)라는 제도를 통해 쉽게 만나고 헤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며, 그러한 관계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가정이라는 소중한 울타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자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 학생은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에 대한 개방적 문화의 영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학교 내 동성에 분위기도 만만치 않다. 학교 생활기록부에는 아버지나 어머니 대신 부모1, 부모2로 기록하며, 설문조사의 성별 기재 칸에도 제3의 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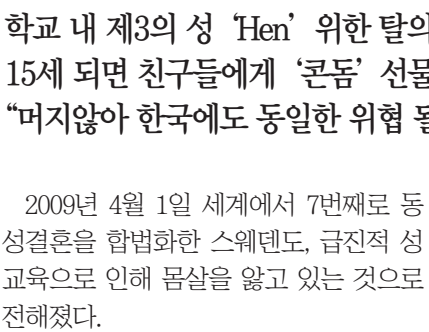
제3의 성을 가진 이들을 일컫는 ‘Hen’이라는 인칭대명사가 존재하며, 학생 본인이 이를 원한다면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도 의견을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만약 제3의 성을 가진 아이들이 비하 발언으로 불쾌감을 느꼈다면, 학생은 교사를 고발할 수 있고 나아가 교사 자격도 박탈시킬 수 있다.

이미 학교 내에 제3의 성을 가진 학생들을 위해 따로 탈의실을 마련해 두었으며, 화장실도 공용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고, 학교뿐만 아니라 식당이나 공공장소의 화장실 역시 다 공용으로 봐도 무방하며, 공용화장실이 당연시돼 두 성 간의 구별이 많이 허물어진 상태다.

주 학생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성애 합법화의 위험성”이라며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과 같이 당연시하지 않게 되는 순간 ‘그게 뭐 어때서’라고 생각하게 됐다. 아직 성장기인 청소년들에게 학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주 학생은 “만약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아마 머지않아 한국사회에도 큰 위협이 될 것”이라며 “한국의 저와 같은 젊은 청소년들에게 소중한 양성의식과 건강한 학교문화가 자리잡길 바란다. 한국 동성애 합법화를 힘써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송경호 기자



스웨덴에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주다는 학생

사우스베이, 토렌스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초등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신태섭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유지부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가디나 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310)217-9191 www.gpclove.com

이석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E.M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단기) 오전 9:45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단기) 오후 11:00

나성금란교회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김진식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한어찬양부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남가주살롬교회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310)787-1004 shalomch.org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대흥장로교회

피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310) 719-2244 / dkpc.org

서보현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강신권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김경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은혜로교회

세일을 행하시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이동진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EM예배 오전 11:00 오전 5:40(토)

성화장로교회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만나며, 함께 믿는 믿음-사랑-소망 공동체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310) 515-1191 www.sunghwachurch.org

이호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5:15(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이름없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라(롬 10:15)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562) 453-5644

박성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EM예배 오전 10:45 금요성령대방회 금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처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이상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 90247
T. (714) 296-6783 www.sbhvision.org

이중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 530-4040 / F.(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1부 오전 9:30/2부 오전 11:0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김우준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분단
주일2부예배 오전 9:45 분단
EM 예배 오전 9:45 101호
주일학교 오전 11:30 분단
YM/YN예배 오후 2:00 분단
수요일예배 오후 8:00 분단
새벽예배(월-토) 오후 5:30 분단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림없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310)370-5500 / www.torranceccg.org

윤 목 담임목사

주일1부 오전 9:00
주일2부 오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1부), 6:30(2부)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s, CA 90274
T.(310)715-9902

O. C., 엘바인 지역

김철민 장로

결혼교회, 사모교회, 부부교회, 아버지교회
www.GodFamily.com
www.CMFM.org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562) 483-0191 / (714) 493-0191

이명익 담임목사

성경통독모임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유초등부 오전 11:00
Youth/College 오전 11:00

UBM교회

그리스도의 사랑과 함께 연합하는 교회

151 E.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2
Tel: 714-336-8995 www.ubmchurch.com

민승기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구봉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영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애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오병익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 초등부예배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설가곡 예배 매일 4부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남가주 벤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백정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영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애장년부 오전 9:30, 11:30
영애예배(E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남가주 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이 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저녁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

남가주 순복음교회

예수 생으로 영생을 살리는 생애공동체 ALL IN JESUS 함께 오고 함께 가는 생애공동체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cfc.com

김성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남가주 새소망교회

예배 성령의 선물 받은 믿음이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왕상윤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수요일예배 오후 8:00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한국교회 주일 오후 1:30

NEXT 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신인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일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 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9:45 목요일예배: 오후 7시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6:00(화-금)
유년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설모임: 매달 둘째 및 셋째 금요일
중고등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Everlove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46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92833
T. (714) 525-0191 / www.ebscca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www.dagamsachurch.org

김일권 담임목사

다 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988-3321, (562)896-1665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00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2부 5부)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어린이예배 오전 11:30
전망예배 오후 7:00(수) 제자상서 오전 9:30(금)
중보기도 오전 9:00(목)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45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11:00 오후 6:00(토)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 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 영아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본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후 12:3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영아, 유아, 주일학교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Youth 청년 오전 12:30

정기정 담임목사

샘물교회
샘물이 흘러나와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교회

11909 Courser Ave, La Mirada, CA 9063
T. (714)749-7770 www.saemmoool.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9:15, 11:30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박신중 담임목사

얼바인은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아)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8: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어) 청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FAME예배 오전 11:30(청년 영아)

김인철 담임목사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일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일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1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E.M.(Youth) 오전 11:00

김인철 담임목사

오렌지가나안장로교회
교회와 나는 하나이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운명공동체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549-0121 www.myocpc.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양자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매월 마지막 금요일)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하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루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2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일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하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관반교회 세계선교를 머무리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예배 오전 10:00 금요일성경연구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일예배 오후 7:30

최성철 담임목사

좋은나무교회
말씀을 배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며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교회

1531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www.goodtreefellowship.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영어) 오전 10:00
3부예배 오후 11:45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신원규 담임목사

좋은마을교회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T. (714)646-9259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영아 예배 오전 10:00 오전 6:00(토)
유초등 예배 오전 11:30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회복과 회심을 경험하는 예배공동체

1937 W. Chapman Ave., Orange, CA 92688
T. (714)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info@Pottersccc.com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EM CHURCH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7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oc.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PASTOR JOSEPH SU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urch.org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D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교회가 정치 않는 게 죄... 2명만 당선돼도 국회 바꾼다”

기독교자유당, 전당대회 열고 300만표 이상 목표로 기치



기독교자유당 전당대회에 참석한 전광훈 목사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송경호 기자

정교분리 오해와 ‘소수정당’ 비판이 가장 힘들어 다윗의 물뿔들보다 강한 투표권으로 주사파 박살

기독교자유당이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당대회를 개최했다. 기독교자유당은 21일 오후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약 500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한 이 대회에서, 총 300만표 이상 득표해 국회의원 21명 이상을 배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광훈 목사(한기총 대표회장)가 주도하는 기독교 정당은 16년 전 제17대 총선에 처음 도전해 228,837표(1.07%), 제18대 443,775표(2.59%), 제19대 257,190표(1.20%)를 기록했고, 지난 제20대 총선에선 역대 가장 많은 626,853표(2.63%)를 얻었다. 특히 제20대 총선 당시에는 또 다른 기독교 정당인 기독교당 12만 9,978표(0.54%)를 기록, 단일화를 이뤘을 경우 비례대표 의원 1명을 배출할 수 있는 3%를 넘길 수도 있었다.



전광훈 목사가 경과를 설명하고 있다. ©송경호 기자

전광훈 목사는 이날 그간의 경과들을 보고하며 “약 20년 전 조용기 목사님과 김준곤 목사님께서 저와 장경동 목사를 불러 ‘기독교당을 만들어 국회에 집어넣으라’고 명령하셨다. 처음엔 그 의미가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어른들을 믿고 해보야겠다고 결심하면서 이 일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약 2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 첫째는 정교분리에 대한 오해였다고 말했다. 그는 “정교분리는 원래 미국의 토마스 제퍼슨이 세상 정부가 교회를 탄압하지 못하게 하려고 만든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일제와 박정희 정권이 각각 교회의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을 막기 위해 이를 왜곡했다”며 “전 세계 역사가 다 기독교 정치로 이뤄진 것으로, 오히려 교회가 정치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소수의 기독교 정당 의원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국회에 기독교인이 절반 가까이 있는데, 그들에게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에 반대하자고 하면 당론에 어긋나서 안 된다고 한다”며 “그러나 기독교 정당 의원이 그 의원에게 가서 ‘지역구에 속한 교회에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하면 결과가 바뀐다. 그들은 신앙보다 당론, 당론보다 당락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두 명만 있었으면 탄핵을 막을 수 있었다. 두 명만 들어가도 국회에 있는 원수 마귀들

를 1표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라며 “교회 안에만 갇혀서 혼탁한 여의도를 비판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는가? 기독교자유당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국회의원뿐 아니라 대통령까지 배출해서 권력이라는 지렛대로 대한민국을 성스럽게 바꾸길 바란다”고 했다.

송경호 기자

전도사도 '배드 파더스'?... "7년간 양육비 미지급"

최근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무책임한 아버지'의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 대표가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배드 파더스(Bad Fathers)'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한 전도사도 '배드 파더스'로 지목한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이 여성은 15세 때 출석하던 교회에서 '예배인도자'였던 남성을 처음 만났다고 한다. 이 여성은 미성년자였던 시절 남성으로부터 성관계 혹은 유사 성관계를 요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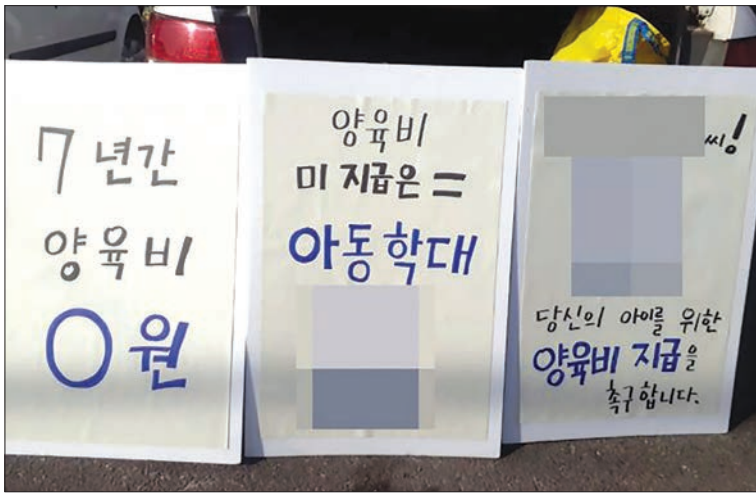
그렇게 관계를 지속하던 여성은 21세 때 임신을 하게 됐다. 여성에 따르면, 사실을 알게 된 남성의 부모는 '목회해야 할 사람'이라며 임신 8개월 이후까지 낙태를 종용했다.

낙태 강요에 못 이겨 둘은 해외로 동반 출국했다. 여성 홀로 출산을 위해 귀국하려 했으나, 출국 예정일을 하루 앞둔 2009년 8월경 아기가 세상 밖으로 나왔다.

여성 당시 현지에서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병원에 가지 못한 채 목탄 방에서 출산을 해야 했다. 이후 현지에 정착하면서 살림집 등 정착 비용은 여성의 부모가 부담했다.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다. 여성에 따르면 출산 열흘 뒤 둘은 말다툼을 했고, 이후 남성은 여성과 아이에게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는 주변 이웃들까지 알려져, 이웃의 신고에 의해 경찰이 집까지 찾아온 기록도 있다고 한다. 현지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둘은, 2년만에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갈라섰다. 여성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는 여성의 1인시위 피켓.

은 2011년 아이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후 남성은 8차례 총 100만원을 입금한 것 외에는 2013년 8월 이후 지난 7여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한다. 도중에는 남성이 부모와 함께 찾아와 재결합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여성은 가정폭력과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거절했다고 한다.

이 여성은 아이의 치료비와 상담비로 매달 60만원이 필요하며, 아이에게만 월 100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어,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고 한다.

현재 이 남성은 목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으며, 지난 몇 년간 수원 한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했다.

여성은 지난 7년간 침묵하다, 남성이 소속 총회 주관 겨울 수련회 예배인도자를 맡는 등 사역을 계속하는 모습을 보고 '양육비 요구' 1인

시위를 시작했다.

1인시위 후 수련회 주최측은 이 남성의 예배인도자직을 박탈했다. 이를 알게 된 노회와 총회 측도 처리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 측은 "남성이 시간을 끌며 법적으로 해결하자고 하는데, 당장 치료가 필요한 아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자 엄연한 아동학대"라며 "남성은 가해자임에도, 저의 1인시위로 피해를 봤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적반하장 식의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이 여성은 "이런 사람이 목회자로 있는 교회와 교단에 우리 자녀를 맡길 수 있겠는가"라며 이 남성이 속한 노회와 총회 측에 양육비 미지급분 배상과 함께 목사안수 자격 박탈을 요구하고 있다.

본지는 남성 측의 반론을 정취했으나, 남성 측은 반론 재제를 사양했다. 이대웅 기자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7년 갈 줄 몰랐다... 모두 제 불찰"

한국 정서 모두 알았다면, 절대 건축 안 했을 것



오정현 목사.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가 "서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살아있는 예배자, 참 예배자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자고 예배에 전력투구했다. 매 주일 임하시는 성령님, 복음이 살아 있는 예배에 집중했다"고 했다.

오정현 목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다들 안 된다고 했지만, 어린이처럼 심플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하자고 했다"며 "주변을 좀 더 돌보면서 겸손하게 추진했어야 했는데, 미흡했던 점이 있었다"고 전했다.

건축 추진 이유에 대해 그는 "2003년 부임한 뒤 교회가 부흥하면서, 안전문제가 대두될 정도로 공간문제가 심각했다. 주변에서 예배당을 건축해야 한다고 했다"며 "그러자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엄청난 헌신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면 건축해가게 나게 하실 것이고, 건축해가 나면 건물을 짓고 임당과 헌당을 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단순한 믿음을 갖고 진행했다"고 밝혔다.

7년간의 교회 분쟁에 관해선 "정말 7년이나 갈 줄은 몰랐다. 입장이 다른 성도들과 꾸준히 소통해야 했는데...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라고 언급했다. "조심해서 잘 살피지 아니한 탓으로 생긴 잘못"이라는 의미다.

그는 "다윗은 고통의 절정에

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살아있는 예배자, 참 예배자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자고 예배에 전력투구했다. 매 주일 임하시는 성령님, 복음이 살아 있는 예배에 집중했다"고 했다.

오 목사는 "내 마음이 무너지면 수많은 성도들이 흩어지는 상황이었다. 그 상황에서 포기하는 것은 목자의 자세가 아니었다"며 "2가지 원칙을 갖고 나아갔다. 첫째, 끝까지 주님을 신뢰한다. 둘째, 말씀대로 목회를 해 보자. 그래서 고난의 시기 어려움에 부딪친 사람들을 더욱 찾아갔다"고 말했다.

또 "지난 7년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체질로 바뀌는 인내와 겸손의 과정이었다. 주님이 주신 고난을 자원으로 삼는 시간이었다"며 "고난은 짐체가 아니라 축적이 되면 양으로 비할 수 있는 발판이 됨을 체득했다. 한국교회도 현재 겪는 고생을 단순히 부정적 짐체 불찰이란 '조심해서 잘 살피지 아니한 탓으로 생긴 잘못'이라는 의미다.

이대웅 기자

홍정길 목사 "거짓말 덮으려 거짓말하면 독재 불가피"

몇몇 말 재주꾼들 귀변에... 정부, 끌려가선 안 돼 지도자들은 '떠도는 소리' 에 마음 빼앗겨선 안 돼 전광훈 목사와는 같이할 수 없다 밝혀

홍정길 목사(남서울은혜교회 원로)가 "입만 보수, 입만 진보는 의미 없다"고 밝혔다.

홍 목사는 20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하나의 거짓말을 덮으려면 10개의 거짓말을 해야 한다. 다시 10개의 거짓말을 덮으려면 100개의 거짓말이 필요한데, 결국 독재나 전횡이 불가피하다"며 "이 정부는 너무 말에 의지한다. 말은 실재(實在)가 있어야 한다. 말 재주꾼 몇 사람이 귀변으로 정부를 끌고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진보, 보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깊은 사유 없이 온라인에서 배설하듯 얘기하고, 그걸 정치라고 하면 안 된다"며 "좋은 생각 한다고 좋

은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이 뭘 했는가, 뭘 하는가를 봐야 한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일부 인사의 귀변을 앞세운 '말의 정치'가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정길 목사는 대통령을 포함한 지도자에게 필요한 리더십으로 "떠도는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남북 관계가 막혔다고 하지만, 할 일이 많다"며 "탈북민들이 세계 도처에서 고생하고 있다. 지금이 도울 때다. 북의 눈치만 볼 게 아니라, 기분 나쁘지 않게 할 소리는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 목사는 "새벽 4시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두 가지만은 후손에게 유

산으로 물려달라고 기도한다"며 "하나님은 신앙, 또 하나님은 자유다. 이것은 목숨을 걸고라도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나눔 교류에 대해서는 "북에서 안 하겠다는데 방법이 없다"고 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에 대해서는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 쪽에서 찾아와 도와달라고 하더라"며 "그런데 그분이 쓰는 언어 품격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당연히 같이할 수 있는 일도 없다고 했다"고 답했다.

이대웅 기자



홍정길 목사.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통일선교도서

책의 추천자들: 오대환목사(예수전도도), 주선배교수(장신대 명예교수), 이원호목사(예수전도도), 송정영목사(목숨만대 공동대표), 김준익목사(충남대목회), 신정민목사(충남대목회), 유권자목사(새생명복음교회), 김민석목사(ACC공동대표)

목사님 목사님 책의 편지자 \$20/권당 + \$5 우송료

지금까지 3만 5천부가 판매된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과 속편 '복음의 자전적 스토리와 지도자들의 순교정신으로 기록한 한국교회'를 소개하고, 우리에겐 복음통일의 완수라는 분명한 메시지의 울림이다.

* 체크오더: GBMW 모든 기부금용 세금공제 혜택을 받는 세금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1100 선교사 GBMW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 (425)775-7477 gbmwu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타일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 안녕 하세요? 18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들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날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돌아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8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2020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ATS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기독교대학(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석사 과정 개설
- 입학상담: 조경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이사장: 조종근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master@gmail.com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입학예고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총회 목사고사,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BTS.EDU / KEB

그리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신학교(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겨울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참,(진리의길) 앎,(학문의 길) 삶,(십자가의 길)

신학대학교

신학과(B,A) | 126학점

신학대학원

- M.Div 교역학 석사과정 | 96학점
- D.Min 목회학 박사과정 (NYTS)

본교 지원시 특전

- 1)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대학(BA)과정이나 교역학 석사(M.DIV) 과정 지원자는 첫 등록학기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 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입학상담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213-272-6031



PRINCETON BIBLE UNIVERSITY IN AMERICA

프린스턴바이블유니버시티

CNA | RN 시험준비영어반 학생모집

CNA, RN, 채혈사 입시를 위한 영어 강의를 개설됩니다
미국 공립학교에서 36년간 영어교사를 하신 헨리김 선생님이 지도합니다.



헨리김 선생

CNA, RN 준비반

월,화,수 오후 2시~4시

채혈사 준비반

월,화,수 오후 4시 30분~ 오후 6시 30분

상담문의전화

818-624-9106
213-272-6031

프린스턴바이블유니버시티 2867 1/2 7th St. Los Angeles, CA 90057

프린스턴 바이블 유니버시티 2020년 입학생 및 편입생 모집

프린스턴 바이블 유니버시티(PRINCETON BIBLE UNIVERSITY) 에서 입학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받아 그의 사역자로 헌신하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학사과정

(B.Th/B.A)

126학점

석사과정

(M.Div/M.A)

96학점

박사과정

(D.Min/Ph.D)

48학점

학생수시모집

등록상담전화

310-678-6836

213-249-6924



PRINCETON BIBLE UNIVERSITY IN AMERICA

프린스턴바이블유니버시티

2867 1/2 7th St. Los Angeles, CA 90057 | TEL: 310-678-6836

꿈을 꾸고 꿈을 성취하는 지혜

하나님은 우리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성취하길 원하십니다. 저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성취한 사람들을 연구하는 중에 꿈의 강력한 능력을 배웠습니다.

꿈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에너지입니다. 꿈은 모든 어려운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역경을 이겨내는 능력입니다. 꿈은 비극적인 인생을 희극적인 인생으로 역전시키는 능력입니다. 꿈은 유혹을 물리치는 능력입니다. 꿈은 과거의 노예가 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전진하도록 도와주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꿈을 성취하기 원한다면 먼저 꿈의 능력과 꿈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성취하는 과정에서 배운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꿈을 소유해야 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꿈을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소원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소원을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목표를 세우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꿈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소원을 점검해 볼 때 가능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바로 우리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빌 2:13). 소원이란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싶은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장 본능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때 환희를 느낍니다.

소원이란 어딘가를 가보고 싶고, 의미 있는 일을 성취하고 싶은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소원이란 누군가를 만나고 싶고, 누군가를 닮고 싶은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소원이란 하나님의 영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광을 위해 무엇인가를 기어가고 싶은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둘째, 꿈을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꿈은 미래를 향한 그림과 같습니다. 건축으로 말하면 청사진과 같습니다. 존 플래밍은 “건축가는 설계를 마칠 때까지 건물을 지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꿈을 구체적으로 상상할 뿐만 아니라 꿈을 글로 기록하고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합니다. 성취하고 싶은 꿈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성취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초점을 맞춘 꿈만 성취할 수 있습니다.

셋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재능을 알아야 합니다. 재능이란 우리가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점입니다. 재능은 우리의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재능을 알아볼 수 있는 길은 자신이 하는 일을 쉽게 배우고, 지속할수록 즐거운가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성과를 만들어 내는 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좋은 피드백을 받는 것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통해 꿈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강요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심겨주신 재능과 은사를 낭비하는 분이 아닙니다.

넷째, 꿈을 성취하기 위해

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꿈을 꾸는 것은 무료입니다. 하지만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몽상가와 꿈꾸는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몽상가는 운을 기다립니다. 꿈꾸는 사람은 꿈을 성취하기 위해 준비하고 훈련하고 노력합니다. 꿈을 성취하는 사람은 안전지대에 머물지 않고 모험합니다. 때로는 위험을 감수합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꿈꾸는 사람은 대가를 한 번만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불할 줄 압니다.

다섯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좋은 만남을 가꿀 줄 알아야 합니다. 작은 꿈은 혼자서 성취할 수 없습니다.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좋은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좋은 만남을 가꿀 줄 알아야 합니다.

큰 꿈은 쉽게 성취되지 않습니다. 많은 시련과 역경과 오해와 거절과 비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꿈이 좌절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때 좋은 멘토와 좋은 친구가 필요합니다. 꿈을 함께 성취할 수 있는 드림팀이 필요합니다. 식여져 가는 가슴에 불을 붙여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꿈은 없습니다. 꿈을 성취하는 데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눈부신 끈기가 필요합니다. 초심과 함께 꿈을 성취할 수 있는 뒷심이 필요합니다.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도와 주셔야 꿈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 해를 맞이해서 새 꿈을 꾸고 그 꿈을 성취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창세기에 숨겨 있는 눈물샘

연초부터 시작된 성경읽기가 이제는 창세기를 지나 갑니다. 창세기를 대할 때마다 눈물 없이는 넘어갈 수 없는 장소가 있습니다. 창세기 42-45장에 나오는 요셉과 형제들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형들에 의해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은 그 때로부터 이민의 고통스런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 생활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는 자신을 노예로 낚은 형들을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럴 수가 있나?” 그러나 요셉은 한 편으로 형들의 죄단이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인사하는 신령한 꿈을 잊지 않고 소망을 삼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 그렇게 13년이 흘러 나이가 30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이집트 경제를 익혔고, 시위대 감옥의 감독 대신 감옥을 관리하며 이집트 정치를 익혔습니다.

요셉이 왕의 꿈을 해몽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전국에 창고를 짓고 식량을 모아들이 7년 풍년에 이은 7년 흉년을 대비합니다. 가나안 전체에도 흉년이 들어 요셉을 판 10명의 형제들이 식량을 사러 왔을 때에, 이미 요셉은 자신의 고통스런 비자발적 이민이 유대인과 만민을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적 이민”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했고, 자녀들도 낳으며, 성공자의 여유로움으로 상처를 치유 받습니다.

요셉은 흉년이 들어 식량을 사러 온 형들을 일부러 괴롭게 합니다. 정탐꾼이라고 누명을 씌워 3일 동안 감옥에 가둡니다. 석방 시킨 후에도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면 정탐꾼이 아닌 줄 알리라”고 말하면서 시므온을 형제가 보는데서 결박하여 볼모로 잡습니다. 르우벤은 형제들에게 “우리가 요셉에게 행한 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고 형제들을 나무랍니다. 이 말을 들은 요셉은 그들을 떠나



민중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서 울다가 다시 돌아와서 곡식과 곡식을 산 돈을 같이 담아 보냅니다.

가나안에서 식량을 다 먹은 후, 식량을 사오라는 야곱을 향하여 유다는 “베냐민을 데려가야 한다”고 설득합니다. 온 가족이 먹고 살기 위하여 야곱은 막내 베냐민을 내주며 이집트에 보냅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온 것을 보고,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나가서 울고 돌아와 음식을 대접합니다. 형제를 대접하여 보내면서 요셉이 사 용하는 은잔을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은밀히 넣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멀리 떠나지 않아서 다시 그들을 찾아가, 베냐민의 집에서 그 은잔을 찾아냅니다. 요셉이 그들을 꾸중하고 베냐민만 놓고 모두 귀국하라 합니다.

이에 유다는 베냐민을 보내고 자신이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어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말을 듣고 요셉이 큰 소리로 통곡하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우 베냐민을 안고 울고, 형제들을 안고 읍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온 가족을 모셔오라고 요청합니다. 자신에게 저지른 일 때문에 한탄하지 말라 합니다.

형들은 회개할 기회를 얻었고, 요셉은 형들의 회개와 변화와 가족애를 확인하고 치유를 받습니다. 22년 동안 가족들을 갈라놓은 비극적 이별은 섭리적 “리유니언”(reunion)으로 마무리됩니다.

창세기의 눈물샘을 지나며, 울해도 어김없이 감동의 눈물을 다시 흘리게 됩니다.

작은 교회를 위한 부흥 사경회 섬김 사역



김상덕 목사

복음성로교회 개척 37년목회 원로목사
KAPC(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중경 총회장
현, 중남미 선교 회장
유튜브 (복음 채널) 방송선교

작은 교회를 위한 부흥 사경회 섬김 사역

이 땅의 사람들에게 유일한 영원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세워진 주님의 교회를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 힘입어 섬기고자 합니다. 사례비, 교통비의 비용을 자비량하며 섬기고자 하오니 혹시 집회가 필요하실 경우 연락을 주시면 일정을 조절 하여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처
김상덕 목사
T.(714)213-1342
sangdkim@yahoo.com



**CBD Hemp Oil 제품으로
대한민국 식약청 최초 수입승인 제품**

THC Free
환각기능 없음

Dietary Supplement

햄프함초환

대마추출 건강기능식품 SUPERFOOD PROMISE

햄프함초환은 예고없이 오는 혈관 질환, 뇌졸중, 심장병,
치매예방, 신경정신질환, 면역질환, 뇌전증에 탁월한 건강식품!
당뇨 탈출, 숙변제거의 특효!

신이 내린 항암식물!

혈관 청소!
치매 예방

암 전이 예방!
당뇨 탈출

면역력 증강!
숙변 제거



2달분
1,800 환
\$250 +Tax

MANUFACTURED IN THE USA

Cannabinoids 대마추출물
Hemp CBD Oil

많은 질병에 사용되는 유명한 자연치료제입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칸나비노이드를 자극해 염증을 줄여주어 암, 뇌전증 치료와 노화방지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GLA는 **미국암협회가 강력 추천하는 항암 식품입니다.** 대마식물에서 추출된 CBD는 중독성이 없으며 환각성을 유발하는 THC성분이 없습니다. 만성통증, 불안증 등 다양한 질병치료를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연구결과로 건강과 웰빙세계에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함초는 어디에 좋은가요?

- 1 높은 영양소의 보고**
90여 가지의 바닷물 속 좋은 미네랄 성분이 그대로 농축되어 있습니다. 채소를 통해서 섭취가 어려운 요오드는 일일 권장 섭취량의 약 8배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 2 장에 좋다**
함초는 장운동을 촉진하는 작용이 있어 변비를 해소하고 장내에 쌓인 숙변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더불어 장내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하는 효능도 있어 꾸준히 섭취하면 전반적인 장 기능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3 심혈관에 좋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액과 혈관의 지방질을 배출해 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 4 당뇨에 좋다**
함초는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억제해주며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 당뇨를 예방하고 증상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5 간에 좋다**
함초에 들어있는 콜린은 지방간이나 간경변 등과 같은 간질환을 예방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테인 성분이 간의 해독작용을 도와줍니다.
- 6 항암에 좋다**
함초에 풍부한 게르마늄은 항암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를 통해 함초가 간암, 대장암, 유방암 등을 예방하는데 크게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보고 되었습니다.
- 7 식이섬유가 많다**
함초 100에는 약 7~8g의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이는 시금치의 10배에 달하는 양이다. 충분한 식이섬유 섭취는 혈당조절과 체중조절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콜린 성분이 장내 중성지방을 수용성 지방으로 바꾸어 체외로 배출시켜줍니다.
- 8 칼슘이 많다**
함초에는 100g 당 칼슘 235mg, 칼륨 650mg, 철분 40mg 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성장, 갱년기 여성과 노인들의 골다공증 예방, 전반적인 뼈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그 밖에도 항산화, 피부미용, 두뇌 활동 촉진 등이 있으며, 일본 오하라산장 난치병연구소 이토 소장 보고서 '놀라운 함초의 효능'에 항염증, 항균, 감작성 기능 증진, 기관지 건강 개선, 근육통 완화 등의 효능이 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Low Sodium Salt 天然 低鹽

BAJA SEA SALT

코셔미네랄 천일염

청정지역 바하 캘리포니아에서 만든 친환경 천일염으로 최고의 품질과 Kosher(코셔) 인증을 획득하여 미국과 유럽이 인정한 제품입니다.

바하천일염 4대 미네랄	일반 가공소금이 문제! (정제염 - 맛소금, 맛소금)
니트륨 Na : Cl	니트륨 (Na)
칼륨 K : Cl	의사들이 소금을 먹지 말라는 이유는 나트륨만 들어있는 소금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칼슘 Ca : Cl	
마그네슘 Mg : Cl	

중금속
간수

515g
\$30 +Tax

바다의 산삼!

BAJA GLASSWORT POWDER

바하함초분말

청정지역! 바하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된 함초! 바하함초분말로 가족의 건강을 챙기세요!

풍부한 식이섬유
아미노산, 무기질
해양미네랄 함유!!!

150g
\$30 +Tax

(213)386-3896

바하천일염, 바하함초분말 도, 소매 판매합니다.

이음헵프카페
전시판매장

중앙일보

120세 시대에 건강 동반자

1달분
\$170

목회자
50%
할인

Dietary Supplement
HEMP PLUS+

2 TIMES A DAY (15 PILLS)
TOTAL (900 PILLS)

CBD는 신경염증 반응을 감소시키고 신경발생 즉 신경계 조직의 발달을 촉진시킨다.
CBD가 악화되는 알츠하이머 병의 증세를 완화시킬 수 있으며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TheHempPlus.com
hempplusorder@gmail.com

올가년 건강기능식품

알츠하이머·파킨슨·각종 암 예방 포물라

햄프플러스

알츠하이머 병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의 침착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CBD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기능이 있다. 항산화, 항염증 그리고 신경보호 및 재생촉진 효과를 보여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을 늦출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CBD는 뇌의 수용체에 작용하여 정신 질환 및 신경계 치료에 다양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킨슨 병에는
체내 도파민 합성과 손상의 감소, 신경보호, 정신병적 증상향상과 환자의 약물, 공격적 행동 감소의 효능이 있다.

커큐민(Curcumin)추가로 치매의 큰 원인중 하나인 아밀로이드를 분해하는 효과가 있으며 도파민 및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세로토닌의 분비를 증가시켜 준다.

TheHempPlus.com
RopheCentum, Inc.

세계 보건기구(WHO)가 밝힌
알츠하이머, 파킨슨 병, 각종 암 예방에 효과적인
CBD를 햄프플러스로 경험하세요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영화 <미드웨이> (上)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영화 <미드웨이>가 갖는 의미

태평양 전쟁, 한반도 복음화를 향한 역사의 수레바퀴

영화 <미드웨이>는 하와이 진주만에 이어 하와이 북서쪽 미드웨이까지 미국 본토 침략 야욕을 드러낸 일본군을 격퇴하는 미군의 실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미군은 전력상 절대 열세에 있었지만, 암호 해독을 바탕으로 기적을 이뤄냈고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를 잡게 됩니다.

영화 <미드웨이>는 <인디펜던스 데이> 시리즈 등 재난영화 전문 롤랜드 에머리히(Roland Emmerich) 감독을 필두로 에드 스크레인(디베스트), 패트릭 윌슨(레이튼), 루크 에반스(맥클러스키), 아론 에크하트(지미 돌리틀), 우디 해럴슨(니미즈 제독), 아사노 타다노부(야마구치), 니 조나스(브루노), 키언 존슨(제임스 매레이), 루크 클라인탱크, 맨디 무어, 대런 크리스 등의 초호화 배우들이 출연합니다. -편집자 주

태평양 전쟁과 미드웨이: 미드웨이 해전, 일본 연합함대의 수세전환

제2차 세계대전의 주요 전선은 크게 세 방면으로 나뉜다. 첫째는 영불해협을 경계선 삼아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이 독일에 맞서 싸운 유럽 서부전선, 둘째는 독일과 소련이 격돌한 유럽 동부전선, 그리고 셋째는 태평양의 섬들을 두고 일본과 미국이 맞붙은 태평양 전선이다.

세 방면의 주요 전선 모두 초반에는 침략을 강행했던 추축국(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다. 물론 이런 상황이 전개된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막강한 전쟁물자 생산력과 병력 자원을 확보하고 있던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점이였다.

그러나 초반 추축국의 우세는 1942년 6월을 기점으로 끝나게 된다. 우선 태평양 전선에서 미드웨이 해전(Battle of Midway)을 기점으로 일본 해군의 공세가 한풀 꺾이기 시작하고, 8월부터는 유럽 동부전선에서 스탈린그라드 전투(Battle of Stalingrad)가 벌어지면서 독일군의 전력이 크게 약화되기 시작한다.

이후 수세로 돌아선 독일군은 1944년 6월 유럽 서부전선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기점으로 와해되기 시작한다. 거의 같은 시기 태평양 전선에서는 필리핀 해전으로 일본 해군이 붕괴되면서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게 된다.

당시 태평양 전선의 상황은 한국의 역사적 운명을 판가름하는 요



1942년 6월 미국과 일본 사이에 벌어진 미드웨이 해전을 그려낸 영화, <미드웨이>.

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1942년 벌어진 미드웨이 해전은 태평양 전선의 초반 전환, 즉 일본 해군 편에 압도적으로 유리했던 전황을 역전시킨 발판을 마련한 중요 사건이다. 영화 <미드웨이>는 바로 이 전투의 전황을 그려낸 작품이다.

1941년 12월 일본이 한창 침공 중이던 중국과 태평양 전체의 패권을 확고히 하기 위해, 항공모함 전단을 동원한 연합함대로 하와이의 미 태평양 함대 기지를 기습했다.

당시 미국 해군은 항공모함, 전함, 순양함, 구축함, 잠수함 전력에서 상대적 열세에 처해 있었다. 미국은 일본과 전면전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던 까닭에 미리 충분한 해군 전력을 양성하지 못했고, 그나마 확보하고 있던 해군력 역시 일본과의 전투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이런 미국 정부의 계산착오 덕에 일본 해군은 하와이 진주만 기습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덕분에 양측의 해군 전력은 원래보다 더 크게 벌어졌다.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 해군은 이런 열세를 극복하고 첫 번째 대규모 해전의 승리를 일궈낸다.

미국이 미드웨이 해전으로 얻어낸 최대 성과는 일본 해군이 보유하고 있던 전체 항공모함 전력의 절반 이상을 무력화시켰다는 점이다.

이 전투에서 미국은 항공모함 한 척(요크타운)을 잃었는데, 그것도 함재기와 운용인력 상당부분은 무사히 퇴환한 상태였다.

반면 미드웨이를 공략한 일본 연합함대에 속해 있던 항공모함 네 척(아카기, 히류, 소류, 카가) 모두는 함재기, 조종사, 정비인력과 함께 바다 속으로 침몰했다.

미 해군은 전술 목표인 적 항공모함 격멸을 달성하자마자 곧바로 후퇴함으로써, 함모 전력을 대부분 유지할 수 있었다. 이후 일본 해군은 태평양 전쟁 내내 항공모함 전력 측면에서 절대적 열세에 처한 가운데

힘겹게 전쟁을 이어나가야 했다. 비록 전함 및 순양함 전력은 대부분 보존하고 있었지만, 해전의 패러다임이 함모전으로 바뀐 이상 항공모함 및 함재기 전력 없이는 해상 전투에서 승리를 얻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 기독교와 미드웨이: 미드웨이 해전 이후 극심해진 일제의 한국 기독교 박해

미국의 미드웨이 해전 승리는 한반도 내 한국인들과 한국교회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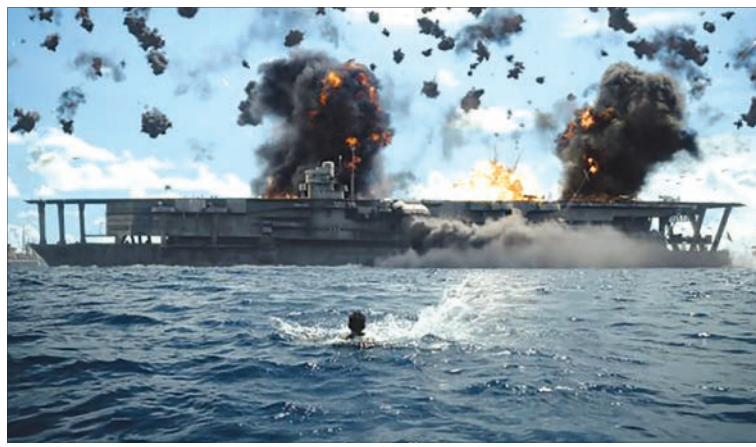
우선 이 시기를 기점으로 일본군이 태평양 전선에서 수세로 돌아서면서 한반도를 비롯한 식민지에서의 자원과 인력 수탈이 크게 강화(1942년부터 강제공출제 시행)되었다.

뿐만 아니라 식민지 전역의 정치적·문화적 내부 단속도 강화되었는데, 그 일환으로 조선총독부는 한국 기독교계에 신사참배, 예배 중 동방요배(東方遙拜)와 묵도, 일본군 국방헌금 등을 강요했다.

신사참배 강요는 이미 중일전쟁이 본격화되던 1930년대 후반부터 개시되었지만, 신사참배를 반대하던 이들에 대한 박해는 일본의 전황이 악화되던 1942년 즈음을 전후해 격화되었다.

이 시기 신사참배 반대에 앞장서던 개신교 목회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의 투옥, 고문이 본격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일부 개신교 목회자 및 지도자들이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기도 했다.

예배 중 동방요배, 즉 일왕이 거처하는 도쿄 궁성에 대한 묵례와 일본군 전몰용사들에 대한 묵도 역시 이 시기를 기점으로 크게 강화되었다. 1942년 열린 제31회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는 총회 차원에서 일본군에 전투기를 헌납하기로 결의하기도 했다.



급강하 폭격기 대대의 공격을 받는 일본 항공모함 키가.

태평양 전선에 투입된 이 전투기 이름은 '조선 장로호'로 불렸는데, 대다수 일본군 전투기와 마찬가지로 태평양 전쟁 후반부에 격추된 것으로 추정된다.

미드웨이 해전 이후 일본군의 수세 전환은 일제의 한국 기독교 박해가 끝나간다는 역사의 신호였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 기독교인들은 믿음을 시험하는 극심한 고난을 감내해야 했다.

당시 한국 기독교의 상황은 마치 로마 제국 최후의 기독교 박해 시기(디오클레티아누스의 박해, 297-311년)를 보는 듯했다.

주후 3세기 말, 이민족 침입과 기독교 확산으로 흔들리던 제국을 다시 '로마화'하기로 결심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디디모스 신전 신탁에 따라 기독교와 마니교 박해를 개시한다.

이 박해는 네로 황제 이후 일어난 기독교인 박해 사건 가운데 규모로나 정도로나 가장 악독한 박해로 기록된다. 로마의 신들과 황제 숭배를 거부한 기독교 지도자 다수가 잔혹하게 살해되고, 교회 재산과 기독교인들의 모든 법적 권리가 박탈되었다.

그러나 이 박해는 로마 제국 내부의 분열과 불안을 가중시켰고, 더 이상 박해를 지속해봐야 제국의 붕괴만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콘스탄티누스와 리키니우스에 의해 끝을 맞이하게 된다(313년 밀라노 칙령).

역사적으로 보면 복음 전파의 사역, 선교 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나기 직전에 자주 대규모의 박해와 성도들의 순교가 발생하는 상황이 전개돼 왔다.

예를 들어 로마 제국 전역으로 복음이 확산되기 직전에는 유대인들에 의한 스테반의 순교, 헤롯왕에 의한 사도 야고브의 순교와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발생했고, 이들의 순교를 발판으로 로마 제국 전역

의 이방인에 대한 선교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앞서 예를 든 디오클레티아누스 박해와 로마 제국 내 기독교인들의 순교는 콘스탄티누스의 기독교 공인으로 이어졌다. 한국 기독교계 일부 지도자들의 신사참배 거부와 순교는 해방 이후 한국교회의 빠른 회복과 급격한 교인 증가로 이어졌다.

이런 역사적 사례들은 선교와 복음화가 결코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님을 보여준다. 역사의 섭리는 '모든 민족과 열방에' 복음이 전해지는 방향으로 진행되지만, 그 과정에서 신자들의 믿음을 휘방하고 시험하는 일들이 필연적으로 관여되는 듯하다.

미드웨이 해전의 결과는 일제가 자신들의 식민지에서 자행하던 기독교 박해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었지만, 그 후 완전한 종전과 해방에 이르기까지 약 3년 동안 한국 기독교계는 여러 방면으로 순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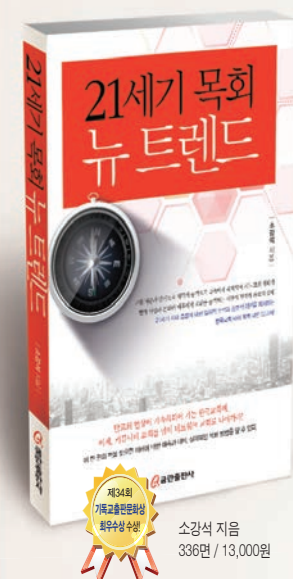
오늘날 한국교회의 성세는 이 시기의 인내와 신앙의 투쟁에 상당 부분 빛을 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교회는 그 결실에 취한 나머지, 믿음의 선진들이 감내해야 했던 고난의 과정을 망각한 채, 순전한 신앙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 역사는 교회 역사와 불가분의 관계로 얽혀 있다.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영화 <미드웨이>가 갖는 의미는, 단순히 큰 규모의 전쟁을 재현해 보여주는 데 머무르지 않는다.

이 영화는 역사의 수레바퀴가 교회와 신앙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서, 기독교인들이 감당해야 할 신앙의 싸움을 간접적으로 일깨워주고 있다. <계속>

박욱주 박사(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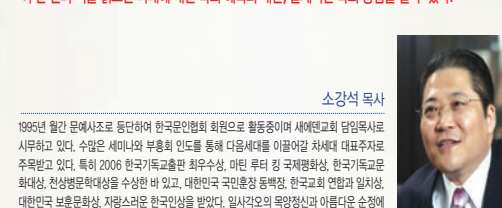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통합) 부총회장 당선 “한국교회 발전을 위해 크게 쓰임받길 기도합니다.”



21세기 목회 뉴 트렌드

교회 내분과 반기독교 세력의 공격으로 급속하게 파괴되어가는 교회 생태계 현대 사상과 문화의 배후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전략과 음모의 실체 21세기 시대 흐름에 대한 입체적 분석과 창조적 대안을 제시하는 한국교회 미래 목회 대안 보고서!

말교회 현상이 가속화되어가는 한국교회여, 이제, 커뮤니티 교회를 넘어 네트워크 교회로 나아가라! 이 한 권의 책을 읽으면 미래에 대한 예측과 대안, 실행적인 목회 방법을 알 수 있다.



소경석 저음 336면 / 1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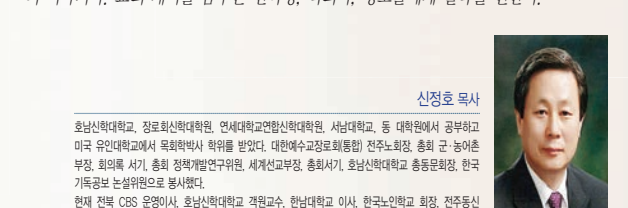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 하나님의 청지기 40여 년 이야기 -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킨다”는 청지기 사상은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킴으로써 오는 고난도 각오해야 한다”는 의미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부지런히 전도할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온 전주동신교회와 신철호 목사의 이야기다. 교회 개혁을 꿈꾸는 신학생, 목회자, 성도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신철호 저음 380면 / 15,000원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D Printing

CD전문 주님미디어입니다.
 교회성경,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

전도용 볼티슈
 영타슈
 주일제전
 2020년
 공미보고
 마그네틱 영봉투

문의 323.265.0244 www.junimmedia.com

Han's piano tuning
 피아노조율

James Han
 Sale Used Piano
 Professional Tuning
 Repair & Moving
 godfist91@gmail.com
 Tel : 562-822-6778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40년만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치과 의사 이우희
 이동희 원장

교회행사, 수련회, 단체를 위한
맞춤형 후드 티셔츠

원하시는 문구와 로고를 넣어서
 우리교회만의 후드 티셔츠를
 예쁘게 제작해보세요!

WHEN WE PRAY

그레이
 블랙
 네이비
 차콜

할인 이벤트

25개	\$ 19.5 (개당)	only \$15.99 (개당)
50개	\$ 18.5 (개당)	
100개	\$ 17.5 (개당)	

아트설교연구원 인문학 서평 **믿음과 행함의 양 날개**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무력
김선일
플랜비디자인 | 303쪽

당신은 사무력(思務力)이 있는가? 당신에게 꼭 필요한 힘, 부족한 힘, 저절로 커지지 않는 힘

남다른 결과를 만드는 비결은 생각하는 힘과 되게 하는 힘에 있다고 보고 이 힘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꼭 필요했지만 누구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던 일 잘하는 법에 대한 어디에도 없는 저자만의 생각을 만나게 된다.

노동과 지식 모두 저물어가는 시대 생각하는 힘과 되게 하는 힘 필요 사무인(事務人)→ 사무인(思務人)

사람들은 이 땅에서 저마다의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 내가 맡은 일이라면 누구나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지만 같은 일이라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 그 차이는 능력의 차이이다. 단순한 노동의 시대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오히려 점차 외국인 노동자나 자동화된 기계로 대체 되고 있다. 노동의 시대뿐 아니라, 지식의 시대도 저물어가고 있다.

피터 드러커는 1959년 <내일의 이정표>라는 책에서 '지식 근로자'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다. 그의 생각대로 지식 근로자는 점차 늘어났다. 한때 '지식 경영'이라는 용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노동과 마찬가지로, 지식 또한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맞이하고 있다. 과거에 사람의 머리와 책 속에 있던 지식은 지금 컴퓨터 속에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규모로 저장되어,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아는 것이 힘인 시대는 분명하게 저물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사무인(事務人)이 아니라 사무인(思務人)이다.

사무인(思務人)은 생각을 기반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사무인(思務人)을 지칭하는 힘이 바로 사무력(思務力)이다.

사무력(思務力)은 사력(思力)과 무력(務力)이 합쳐진 조어이다. 사력은 '생각하는 힘'이라면 무력은 '되게 하는 힘'이다. 두 손이 부딪혀야 박수가 되듯, 이 두 힘을 합쳐야 무언가 이루어진다.

더 좋은 생각은 되게 하는 가능성을 높여주고, 되게 하는 힘은 부족한 생각을 보완해 준다. 사무력(思務力)이란 책은 그냥 나온 책이 아니다. 저자의 산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책이다.

일 잘하는 것과 경영 성공 달라 보이지 않는 일 시작할 순 없어 일 보이는 것, 생각에서 비롯돼

이 책은 누구나 배워야 하지만 아무도 배우려 하지 않는, '일 잘하는 법'에 대한 오랜 고민을 담았다. 저자는 일을 잘한다는 것에 대해 '결과가 남다른 것'이라고 정의한

다. 그리고 남다른 결과를 만드는 비결은 생각하는 힘과 되게 하는 힘에 있다고 보고 이 힘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일의 출발은 일의 발견이다. 보이지 않는 일을 시작할 수는 없다. 일이 보이는 것은 생각에서 비롯된다. 말로는 일이 보인다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떠오른 것이다. 일을 발견하는 것은 시력이 아니다. 눈이 밝아야 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안목이 있기에 보이는 것이다. 안목은 시력(視力)이라기보다는 즉 생각하는 힘과 관련이 있다."

일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사력(思力)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생각대로 되게 하는 무력(務力)이 있어야 한다. 옛말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 생각이 구슬이라면 실행은 그것을 꿰는 것이다. 생각을 보배로 만드는 것은 일을 되게 하는 힘 곧 실행력이다.

정주영 회장은 되게 하는 힘의 중요성을 짧지만 강렬한 한 마디로 말했다. "이봐, 해봤어?" 현대중공업 연수원에 가면 정주영 회장의 이런 글귀가 액자에 적혀 있다고 한다.

"나는 이 날까지는 어느 공장이고 땅을 마련하는 데에서 시작해 말뚝을 박고 길을 닦아서 그 위에 내 손으로 내가 지어시 시작하지 않는 공장이 없다."

책 웰치 전 CE 회장도 이런 말을 했다. "조직의 경쟁 우위는 배우고 배운 것을 빨리 행동에 옮기는 데서 온다." 좋은 결정은 분명히 생각하는 힘에서 나온다. 하지만 좋은 결정을 한다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성장이나 조직의 성장에는 좌우의 힘의 균형이 중요하다. 한편으로는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다른 한편으로는 되게 하는 힘이 강해져야 한다.

생각하는 힘 4가지

저자는 이 책에서 생각하는 힘 4가지와 되게 하는 힘 4가지를 소개하고 있다. 생각하는 힘은 첫째, 파악하는 힘, 통찰력이다. 둘째, 따져보는 힘, 비판적 사고력이다. 셋째, 궁리하는 힘, 발상력이다. 넷째, 결단하는 힘, 판단력이다.

생각하며 일한다는 것은 스스로 파악하며 일한다는 것이다. 스스로 파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먼

저 해야 하는지 순서가 뒤죽박죽이 된다. 따라서 파악하는 힘이 중요하다.

또 생각하며 일을 한다는 것은 따져보며 일을 하는 것이다. 따져보지 않고 일을 추진하면 성급한 결론으로 인한 화를 자초하게 된다.

그리고 생각하며 일을 한다는 것은 궁리하며 일을 한다는 것이다. 더 좋은 방법은 저절로 더 좋아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생각하며 일한다는 것은 옳은 결정을 내리며 일하는 것이다. 좋은 결정은 조직을 살리지만 잘못된 결정은 위험에 빠뜨리기 때문이다.

파악하는 힘, 따져보는 힘, 궁리하는 힘, 그리고 결단하는 힘, 이렇게 네 가지의 힘이 생각하는 힘 이 된다.

되게 하는 힘

그리고 되게 하는 힘은 첫째, 고려하는 힘, 계획력이다. 둘째, 추진하는 힘, 실행력이다. 셋째, 끌어내는 힘, 외교력이다. 넷째, 소통하는 힘, 소통력이다.

되게 하나는 힘이란 고려하고 추진하고 끌어내고 소통하는 힘의 함수관계라고 할 수 있다. 고려란 실행의 과정에서 예상되는 것들을 다양하게 예측하여 계획에 반영하는 힘이다. 즉 계획력이다.

추진하는 힘이 곧 실행력이고, 끌어내는 힘이 외교력이다. 여기에 소통력이 더해져야 한다. 되게 하는 사람의 성장이란 이 네 가지의 힘을 키우는 것이다.

또 저자는 생각하는 힘과 되게 하는 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두 힘은 아무리 넓쳐도 말이 나지 않는 힘이다. 이 두 힘은 타고나는 재능이라기 보다 몸의 근육처럼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강화되는 힘이기도 하다. 아무리 잘 만들어

진 근육이라도 사용을 멈추면 줄어드는 것처럼 생각하는 힘과 되게 하는 힘도 마찬가지다. 쓰면 쓸수록 두 힘은 강화된다."

일 잘하듯 신앙생활도 잘해야 일의 비결 사력과 무력이라면 신앙생활 비결은 믿음과 행함

일을 잘하기를 원하면 생각하는 힘과 되게 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 근육처럼 이 두 힘을 지속적으로 기를 때 일 잘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일하는 사람도 돼야 하지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일 잘하는 사람의 두 가지 힘이 사력(思力)과 무력(務力)이라고 한다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 두 가지 힘은 믿음과 행함이다.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약 2:26)".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행함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에는 말로만 믿는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것이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린 것은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로만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재영 목사
대구 아름다운교회 담임

출처:아트설교연구원



신년맞이

LA 백송교회 전용대목사 초청 찬양 간증 부흥회

2020년 1월 23일(목)~24일(금)
저녁 7시 30분

3251 W. 6th St, Suite B1., Los Angeles, CA 90020
LA 백송교회

문의 213 674 7966
213 245 6616

전용대 목사 Profile

아워드림(Our Dream) 대표
한국복음성가협회 중경회장
한국가정사역연구소 이사
법무부 교정위원
극동방송 홍보대사
넓은등교회 협동목사
올리드림 찬양신학원교수
CTS 조이러디오 전용대의 깃택시 진행자
CMtv 이사, 공연기획단장
CMtv 진행자
국제푸른나무 홍보 아티스트
한국 밀알심장재단 홍보대사
사)한국교회음악원 대외홍보협력이사

한국 최초 CCM 가수
전용대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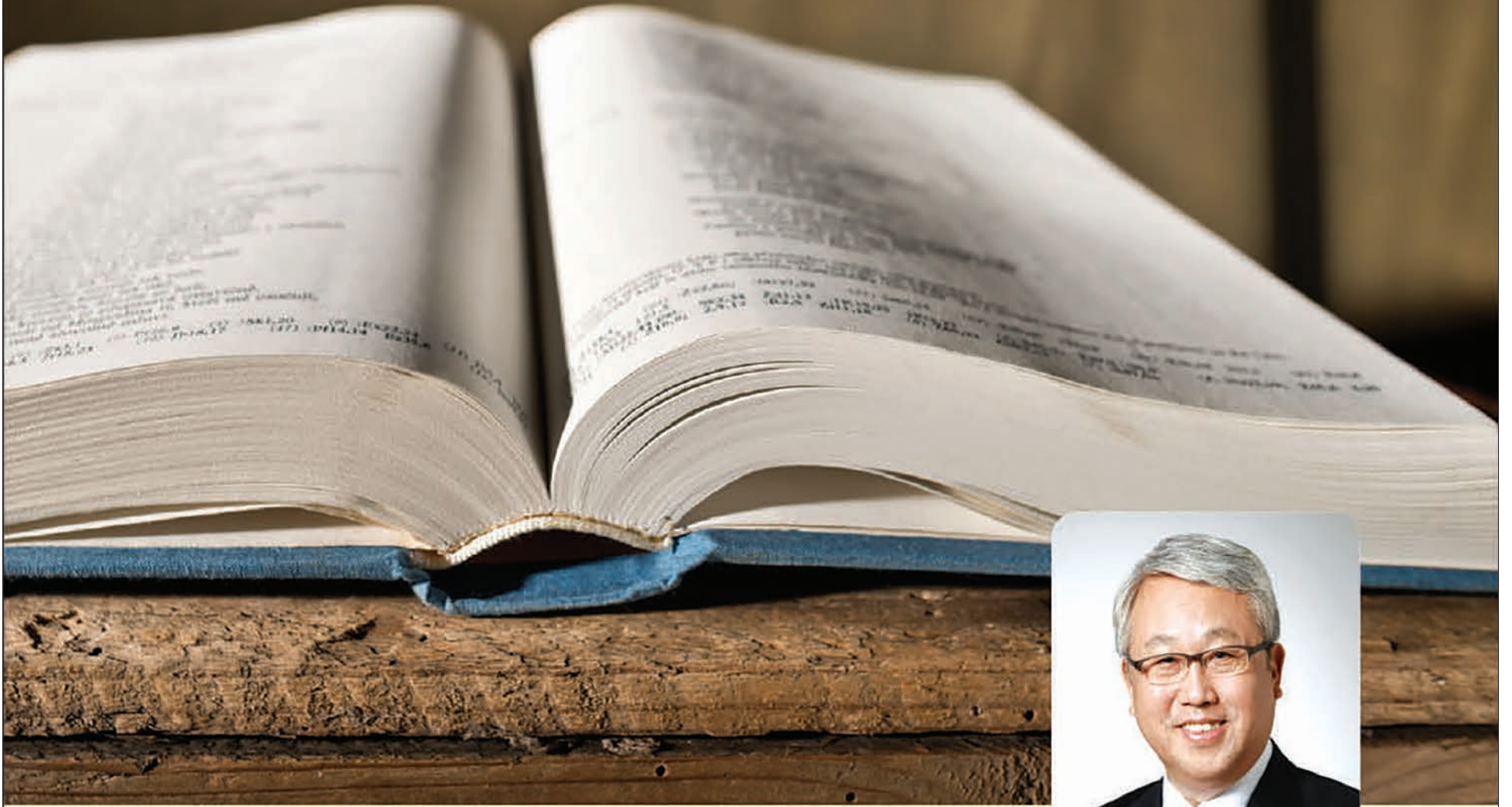
미주성결교회 LA 백송교회

P · R · E · A · C · H · I · N · G C · L · I · N · I · C

2020년 포스트모던 시대의

강해설교클리닉 및 부흥회

이동원 목사 보너스 강의: 설교자를 위한 사모의 바람직한 역할



MAIN SPEAKER
이동원 목사 GMN 대표
지구촌교회

일 시 : 2020년 3월 23일(월) 8PM - 26일(목) 12PM

장 소 : LA 새누리교회
975 S. Berendo St., Los Angeles, CA 90006

강 사 : 이동원 목사 (지구촌교회 원로목사)

특강강사 : 박성근 목사 (새누리교회 담임목사)

대 상 : 목회자 및 평신도 설교자

등록비 : 일인당 \$150 / 부부 \$200 (2월20일까지 등록시 일인당 \$130 부부 \$180)
(선교사/신학생은 일인당 \$100) (점심 및 교재 포함)
(payable to - Preaching World)

숙 박 : Rotex Plaza Hotel - 호텔은 2인 1실 기준으로 일인당 50불 (아침식사와 택스 포함)
(등록비와는 별도 - 개별적으로 예약, Tel. 323-734-1001)

부흥회주제 : 고통의 시대를 이기는 룯기의 로맨스

* 3/23(월) / 8PM 고통의 치유 (룯기 1:20)

* 3/24(화) / 8PM 은혜의 새 아침 (룯기 2:13)

* 3/25(수) / 8PM 찬송의 드라마 (룯기 4:14)

문의 : 권석균 목사 (프리칭월드 대표)
(404) 579-4570 / revkwon21@gmail.com

심윤수 목사 (미주침례신문 사장)
(678) 677-9578 / pysshim@gmail.com

공동주최 : 프리칭월드 / 미주침례신문